

朝鮮朝 濟州三邑 鄉校의 新棚, 重棚, 移建에 關한 研究*

양 진 건
(제주대학교)

— <요 약> —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의 회수를 보면 제주향교가 신창 1회, 중창 6회, 이건 5회, 정의향교가 신창 1회, 중창 1회, 이건 2회, 그리고 대정향교가 신창 1회 중창 5회 이건 1회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창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1회씩 이루어진 것이며, 중창은 비가 새거나 벽이 허물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이건은 제주향교의 경우 화재로 1회 옮긴 것 외에 그 이유의 모두가 풍수지리적인 것이었다.

사학인 서원의 융성으로 향교가 급속하게 폐이(廢弛)되고 지방교육은 서원이 대행하다시피 하던 때에 제주삼읍 향교의 중창과 이건이 빈번했던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와는 달리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실직(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들은 향직(鄉職)을 독점하였다.

향직은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직역(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의 직책(職責)과 향직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교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신분유지처로서의 기능을 했으며 그래서 중창과 이건도 빈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정의향교, 대정향교, 신창, 중창, 이건

I. 서론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B00399)

* 원고접수 : 2006. 7. 31 게재승인 : 2006. 8. 11

향교는 조선조 지방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향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존재한 유일한 관학이고 공자(孔子)를 봉사하기 위해 마련된 문묘가 소재한 공적 기구였다. 따라서 그것은 군·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지방교육의 중심이었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조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체제를 지지하게 할 교화정책도 아울러 펴나갔다. 교화정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할 학교의 설립이었다. 따라서 건국 초부터 학교를 ‘교화(敎化)의 본(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으로는 수도에 성균관을 두어 고급인재를 양성했고 소학으로 중앙에 사학과 지방에 향교를 두어 연소한 경외자제(京外子弟)들을 길러냈던 것이다.¹⁾

그리하여 고려 인종 5년(1127)에 등장한 향교가 조선조에 이르러 전국적인 확대를 보게 되었으며 성종 때에는 모든 군·현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에는 태조 원년(1392)에 일찍부터 향교가 세워졌었다.²⁾ 이것은 지방 향교로는 가장 일찍 설립된 예였다. 태조 3년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향교에 10세 이상의 토관 자제들을 교육시켜 국시에 나가게 하였다.³⁾

향교의 설립과 함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조선의 대(對)제주도정책과 관련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제주도를 교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인식한 중앙의 입장이 개진되어 있다. 정의, 대정의 양현은 태종 16년(1416)에 분치되어 그 후 곧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이로써 제주도에는 3개의 향교가 신창(新創)되었다.

이후 제주삼읍의 향교들은 중창(重創)과 이건(移建)을 거듭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조선조 제주삼읍에 설치된 3개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대한 내용과 그 의미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밝히기 위한 관련 사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서 관련 1차 사료 발굴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부족하나마 다행히 10여점이 넘는 사료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1차 사료 발굴 자체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향교, 대정향교, 정의향교 등 3개의 향교에 관련된 사료가 골고루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제주향교 관련 사료는 12점, 대정향교 3점, 정의향교는 1점만이 발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1) 鄭道傳, 『三峰集』 卷7,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學校案, 「在域中 金處禮碑 我太祖元年壬申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 鄉校再造」. 『增補文獻備考』, 卷209, 學校考8, 鄉學, 「太祖元年 是年 濟州學校成」.

3) 『太祖實錄』 卷5, 3年3月, 丙寅, 「都評議使司上言…乞自今置教授官 土官子弟十歲以上 皆令入學 養成其材 許赴國試…上從之」.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대한 내용과 그 의미를 밝히는 본격적인 작업은 대정향교와 정의향교 관련 사료가 더 발굴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작업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서 우선 기왕에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표면적인 자구 해석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수준에 그치고자 한다. 이다. 보다 중층적인 작업은 자료의 발굴에 보완을 기하고

새로 발굴한 1차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제주삼읍에 설치된 3개 향교의 중창과 이건의 경우, 그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그 목적은 풍수지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신창(新棚)이라는 용어는 새로 집을 짓는다는 의미로 신축(新築)과 동일하게 쓰고 있으며, 또한 중창(重棚)이라는 용어는 낡은 건물을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짓는다는 의미로 건물(建物) 등의 낡고 헐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치는 개수(改修)나 중수(重修) 또는 건축물(建築物), 특히 사찰·왕궁 따위를 고쳐 세운다는 중건(重建)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 이건(移建)이라는 용어는 옮겨 짓거나 세운다는 의미로 옮겨다 설치한다는 이설(移設)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

II. 본 론

1.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의 내용

1) 제주향교

제주향교가 신창(新棚)된 것은 태조 1년(1392)으로 위치는 가락천 서쪽 뚝 위에 있었다. 이후 세종 17년(1435)에 중창(重棚)되었고 세조 12년(1466)에 목사 이유의(李由義)에 의해 다시 중창되었다. 1467년 김처례(金處禮)⁴⁾가 쓴 “옛날 향교 비”에 그 기록

4) 『조선 왕조 실록 CD』에 의하면 김처례(金處禮)는 문과 출신으로서, 서사를 깨달아 시 짓기를 좋아하고 활도 잘 쏘았다고 한다. 세조 4년 9월 11일 황해도 강령(康翎) 현감으로 있을 때에 흰 사슴을 잡아 임금께 올리자, 등급을 뛰어 넘어 관직을 제수 받기 시작하였는데, 병조 참의·평안도 도절제사·행 상호군 등을 지내며, 세조 7년에는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세조 11년 4월에 반란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으로 제주 관료에 소속되었으며, 성종 5년 12월 3일에 다른 곳을 옮겨졌다. 이 비문은 세조 12년 봄에 쓰여 진 것이므로, 김처례가 제주 관노(官奴)로 있을 때의 것이다. 이 비문은 제주 읍지인 『탐라지』의 학교 조목에 실려 전해진다. (한국학 문헌 연구소 편, 1983, 『한국 지리지 총서: 읍지-6 제주도』, 아세아문화사 간행 79면 이하)

이 자세하다.

태조 1년(1392) 학교가 완성되었고, 세종 17년(1435년) 향교가 다시 지어졌다. 세조 12년(1466)⁵⁾ 봄에 이유의(李由義)⁶⁾가 절제사⁷⁾의 명령을 받고 (이 섬으로 와서) 먼저 문묘에 배알하였는데, 그 들보들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통탄스럽게 여기고, 뜻을 내어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이를 판관⁸⁾ 이인충(李仁忠)⁹⁾과 도모하여, 드디어 제주 감영의 병졸들을 내려 보내어, 순번에 따라 새로 짓는 일에 이바지하게 하였고,

-
- 5) 원문에 그냥 ‘성화 병술’이라고만 쓰고, 세조 12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제주 관노로 붙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6) 『조선 왕조 실록 CD』에 의하면 이유의는 제주 목사로 오기 전에는 단종 2년에 승문원 교리, 세조 7년에 전라도 무장(茂長) 현감 등을 지내었다. 제주 목사직을 떠난 뒤에는 예종 1년에 행 부사직(副司直)으로 실록에 올라 있다.
- 7) 『중문 대사전』에는 절제(節制)라는 말 뜻이 법도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부터, 군사를 지휘 관할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1996) 『한국 한자어 사전』에는 큰 군사 기지에 파견되는 3품 이하의 무관 직급으로 올라 있다. 절제사 파견의 목적이 주로 변방을 괴롭히는 외적들의 침략을 막는 데에 있으므로, ‘制’를 제압(制壓)의 뜻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오늘날의 지역 군 사령관이다.
- 8) 고려 시대에 지방에 관리를 파견할 적에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으로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태조 4년 4월 27일에 각 도의 수령이 병마 단련사를 겸임하게 하고, 3품 이상의 경우는 사(使)라는 명칭을 쓰고, 4품일 경우에는 부사(副使)라고 하였으며, 5품·6품일 적에는 판관(判官)이라고 하였다. 세종 13년 1월 21일에는 목관(牧官)으로, 판관과 현령을 중 5품으로 정하고, 세종 25년 7월 17일에는 행(行:직급이 높지만 일을 맡음)·수(守:직급이 낮지만 일을 맡음) 법을 시행하였다.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한 큰 주(州)나 군사적인 요충지인 큰 진영(鎭營)에는 목사와 판관을 파견하였는데, 그 역할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변고가 있어서 절제사를 겸임하고 있는 목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퇴치하러 나아갔을 때에, 하위 직급의 판관은 그 고을의 일을 맡아보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를 상례(常例)로 삼아 목사는 무재(武才)에 능한 이를, 판관에는 문재(文才=吏才)에 능한 이를 파견하자는 논의도 중신들 사이에서 있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고, 변방 지방에는 모두 무재(武才)에 능한 이들만을 보내기도 하였다. 제주 판관에게 특별히 더 부여되는 임무는 교수관(教授官)과 감목관(監牧官)의 일인데, 시대에 따라 이런 일들이 다소 변동된 듯하다.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지방의 장관(長官)인 목사를 도와 파견하는 부관(副官)으로서의 판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토지·호구·농상·학교·사송(태조 1년 7월 28일). 목사는 군대에 소용되는 영전(營田)을 책임지지만, 판관은 관아에 쓰이는 관둔전(官屯田)을 책임진다(세종 29년 9월 4일). 의창(義倉)에서 환곡을 빌려주고 되받는 일, 농상(農桑)을 권하는 일, 사송(詞訟=소송에 대한 재판)을 처결하는 일,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정하는 일, 진휼(賑恤)하는 일, 중앙 관리를 대접하는 일(供億) 등이다(문종 즉위년 12월 29일, 문종 1년 1월 19일).
- 9)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이인충은 세조 1년에 임금 되는 일을 도왔다고 하여 원종(顯從) 공신으로 부사직(副司直)의 벼슬을 받았다. 제주 판관을 지낸 뒤 세조 13년에는 장수의 재주가 있는 이들 30명 속에 포함되어 손자(孫子) 병법을 공부하였으며, 성종 때에는 사간원 헌납(獻納)으로서 한명회를 탄핵하기도 하였다. 성종 11년에 통정대부 병조 참지, 12년에 동부 승지·형조 참의·절충장군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를 거쳐, 15년에 행 강릉도호부사를 지냈다.

교수관 문소조(文紹祖)에게¹⁰⁾ 명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선비들은 일을 벗어 던지고서 도와주는 데에 분주하였고, 목수와 기술자들은 재주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지어 나갔다. 목사 이유의¹¹⁾는 한가할 때마다 몸소 공사장에 와서 지휘하였다.

이에 묘루(廟廡:공자 위패를 모실 집과 그 옆에 좌우로 지어지는 행랑)와 제사(齋舍:기숙사)와 문장(門牆:대문 및 담장)과 당옥(堂屋:교실)과 변두(각각 과일·마른 고기, 김치, 식혜 등을 담아 두는 대나무와 나무로 된 굽이 높은 제사 그릇)와 보케(각각 벼와 기장을 담아 바치는 제사 그릇으로서 보는 겉모양이 네모지고 속안이 둥그렇지만, 껍은 그 모양이 정반대임)와 궤안(几案:책상)과 위판(位版)과 주고(廚庫:부엌)와 구축(구축:마굿간과 화장실)과 정제(庭除:뜰)와 도로(道路)들이 몇 순(旬:10일)을 넘기지 아니하고 빛나게 모두 새로워졌다. 고을 사람들과 나이든 이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앞 다투어 경하하였고, 학업을 서로 권면하였다.¹²⁾

중종 31년(1536)에 들어 심연원(沈連源)¹³⁾ 목사가 명륜당을 중창하였는데 이때 쓴 「명륜당 중수 서문(明倫堂 重修 序)」¹⁴⁾에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가 가정 갑오년(1534년, 중종 29년) 가을에 이곳에 근무하도록 부절을¹⁵⁾ 받아 관청에 오른 뒤, 먼저 향교에 나아가 공경히 선성(先聖:앞 시대의 다섯 성인으로 공자, 안자, 자사, 증자, 맹자)들에게 배알하고 명륜당으로 물러나와 앉았다. 여러

- 10) 『제주 유맥 육백년사』 354면과 359면에 보면, 세조 11년(1465년)에 제주 향교 교수에 임명되었다.
- 11) 『중문 대사전』에 보면, 사상(使相)은 송나라 때에 절도사(節度使) 등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제주 목사는 절제사를 겸임하기 때문에, 병권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높여 ‘使相’이라고 쓰고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사(使)는 왕이 신하를 부린다는 뜻을 갖고 있고, 상(相)은 신하가 왕을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 12) 我太祖元年壬申(1932년), 學校成, 世宗十七年乙卯(1435년), 鄕校再造.
成化丙戌(1466년)春, 完山李公由義, 膺節制之命, 首謁文廟, 痛其樸壤, 慨然欲新. 謀諸判官長興李仁忠, 遂下營卒, 隨番供事, 令教授官文紹祖董之. 土投業而奔走, 工殫巧以經營, 使相每於公暇, 親臨指揮. 於是文廟·齋舍·門牆·堂屋·籩豆·簠簋·几案·位版·廚庫·廐廁·庭除·道路, 不出數旬, 煥然一新.
鄕人·父老·學生·冠童, 耳目爭賀, 學業相勤.
- 13) 『조선 왕조 실록 CD』에 의하면 중종 11년 3월 사마시에서 생원 장원으로 합격된 뒤, 부수찬, 사직, 사복시 부정을 거쳐, 중종 28년 의주목사로 있었고, 중종 29년(1534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뒤 계속 영달하여 6조의 참관을 거쳤고, 손녀가 명종의 왕비였으므로, 명종 때에는 3정승을 역임하였다. 사관의 기록에 보면, 탐장(貪贓)하였으나 성품이 어질어서 자신을 헐뜯는 이들도 용납하여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두희 외(1988:191) 『한국 인명 자호 사전』에 심연원은 생몰이 1491~1558로 나와 있다.
- 14) 한국학문헌연구소 영인(1983) 『읍지:6 제주도』 아세아문화사, 83면과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영인(1989), 이원조 『탐라지 초본 외』 48면에 실려 있다.
- 15) 부죽(符竹)은 부절(符節)과 같은 말이다. 『중문 대사전』에 의하면, 옛날 임금의 명령을 받아 지방으로 나가는 신하는, 대나무를 둘로 나누어 경사(京師)와 행자(行者)가 서로 하나씩 갖고 있다가 서로 맞추어 신표(信標)로 삼았던 데에서 나왔다.

유생들에게 나아가 그 공부한 바를 물어 보았다. 마룻대(棟)와 추녀 끝(宇)을 올려다보니, 무너지고 떨어져 빗물이 새어들이 여기저기였으며, 공부하는 곳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교수 김양필과¹⁶⁾ 함께 개연히 차탄을 하였고, 즉각 거듭 새롭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3년 지나 병신년(1536년, 중종 31년) 가을에, 목재들을 모으고 기와를 구워서 그 옛터에 그래도 집을 헐어 다시 고쳐 얹고 나서, 재목을 깎아 들보를 올리니, 널찍하고 막힘이 없었다. 동쪽과 서쪽 날개를 협실(夾室:결방)로 하여 재생들이 기숙하는 곳으로 삼았다.

옛 건물에는 부엌이 집 곁에 바짝 붙어 있어 아침과 저녁으로 불 피우는 때운 연기가 눈을 아프게 하였는데, 또한 강청(講廳)의 동쪽에 떨어져 짓게 하였다. 재사(齋舍=齋廬:기숙사) 벽이 떨어져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또한 다 고쳐 짓고, 기둥을 검게 벽을 하얗게 칠하여¹⁷⁾ 붉은 색으로 아름답게 만드니, 환히 모든 게 새로워졌다. 성전(聖殿:공자의 위패를 모신 집)과 양쪽 무랑(廡:성전 양 옆에 있는 집)에 썩은 못자리를 모두 바꾸어 새롭게 하였다. 안팎으로 담장이 무너져 있는 것도 이를 돌우고 높이였다. 담장 아래 트랙에 꽃과 대나무를 심었다.¹⁸⁾

선조 15년(1582)에 김태정(金泰廷) 목사에 의하여 향교가 민가의 틈에 있고 사격장이 가까워서 숭경의 분위기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성 안 동남쪽 청풍대 옆, 기록에 의하자면 “제주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가락천 왼쪽 터”로 이진하였다.¹⁹⁾ 이때의 이진에 대한 것은 1653년 신찬(申贊)²⁰⁾ 교수가 쓴 “새로 향교를 옮겨 지은 기

16) 김정희 『제주풍토록』에 제주 사람으로서 생원 김양필 외에는 글을 아는 이가 매우 적다고 쓰고 있다. 『제주 유백 육백년사』 544면에 보면, 선조 34년(1601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7) 유(黝)는 땅을 다져 검게 하거나, 기둥에 검은 색을 칠하는 것이고, 악(堊)은 벽을 하얗게 칠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기둥과 벽에 바탕 색깔을 넣는다고 봐야 뒤에 이어지는 글자와 호응이 됨.

18) 沈連源 明倫堂 重修 序

余於嘉靖甲午(1534년, 중종 29년)秋, 符竹于茲, 上官之後, 首詣鄉校, 祇謁先聖. 退坐明倫堂, 進諸生而叩其所業焉. 顧瞻棟宇, 頽塌漏撓, 不堪爲藏修之所. 於是, 與教授金君良弼, 慨然興嗟, 卽有重新之志也.

越三年, 丙申(1536년, 중종 31년)秋, 鳩材陶瓦, 因其舊基, 撤而改構, 駕而修櫟, 寬敞無礙, 東西翼以夾室, 以爲齋宿之所. 舊制, 廚庖密邇堂側, 朝夕炊烟眯目, 亦令別構, 於講廳之東. 齋廬室壁之圯毀漫漶者, 亦皆修葺, 黝堊丹雘, 煥然一新. 聖殿兩廡, 筵席之陳腐者, 俱亦而新之. 內外垣牆之頽夷者, 亦壘而崇之. 庭除墻下, 植以花竹焉.

19)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十五年 春 牧使金泰廷 移建鄉校于嘉樂川東古齡田 初鄉校 在觀德亭下一里地 鄉校田 泰廷 以爲聖廟 在鄉校內 萬世瞻瞻之地 而介處於閭 巷之間又當射帳之場 非所以致崇敬之意也 遂啓請移建 功既訖而丁憂辭去」.

20) 『사마방목 CD』에 보면 1613년 태어났고 1615년 식년시에 진사로 합격하였다. 『제주 유백 육백년사』 359면에 보면, 신찬(申贊)은 효종 2년(1651년)에 제주 향교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그는 1653년 이원진 목사가 『탐라지』를 펴낼 적에 그 발문도 썼다. 신향교 이창기(新鄉校移創記) 원문은 제주 읍지인 『탐라지』 학교 조목에 나온다. (한국학 문헌 연구소

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공자를 모신 문묘가 옛날에는 제주 성 안에 있는 관덕정 아래 1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1534년(가정 13년, 중종 29년) 심연원²¹⁾ 공이 제주에 목사로 왔다. 삼년이 지난 뒤 1536년에 명륜당이 지어진 지 오래 되어 장차 허물어지려고 하므로, 그 옛터를 그대로 터진 삼아 힐고 고쳐지었다. 또 그 일을 직접 적어 두어서 뒷날 사람들이 보는 데에 대비하였다.

지금 그 기록으로써 그 당시를 살펴보면, 재사(齋舍:기숙사)의 많고 적음과 시설의 규모와 제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헤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옛 향교를 옮기고 난 뒤²²⁾, 다만 심연원 목사의 서문만 전해지고 옮겨 지은 기록이 오히려 결여되어 있다.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 자취가 시간을 따라 사라져서, 나이 든 이가 전해 준 바도 없고, 뒷사람들이 살펴 바도 없다. 백성의 풍속을 살피는 관리가 어찌 가히 이에 마음 아파함이 없으랴?

대개 일찍이 제주의 선비들 가운데 나이가 든 이들로부터 들으니, 1581년(만력 9년, 선조 14년) 김태정²³⁾ 절제사가 제주의 일을 말아보기 위해 왔는데, 먼저 학교에다 마음을 두었다. 공자를 모신 문묘는 만년 동안 길이 우러러 모시는 곳인데 여염집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활쏘기 연습장을 마주하고 있어서 존중하고 받드는 뜻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곧 옮겨 지을 뜻을 갖고서, 드디어 조정에 알리고, 제주 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는 가락천 왼쪽 터를 점을 쳐서 정하였다. 대개 그 땅이 조용하고 널리 트인 점과 제주 성의 시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취한 것이다.

김태정 절제사의 성인을 높이는 뜻이 이와 같이 부지런하였으므로 새롭게 짓는 일이 달포를 넘지 않아서 완성됨을 알리게 되었다. 문묘와 무랑(廡廊:문묘 좌우로 놓인 행랑)이 우뚝 솟고, 재사와 부엌이 다 갖추어졌다. 목수와 기술자들이 이미 집짓기를 끝내자, 제주 땅의 늙은이들과 선비들을 모아 장차 잔치를 베풀고 이를 낙성(落成)하려고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어버이 상을 만나 급히 돌아가게 되어, 그 일을 적어 놓는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²⁴⁾

편(1983) 『한국 지리지 총서: 읍지 -- 6 제주도』, 아세아문화사 간행 80면 이하)

- 21)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중종 11년에 생원과에 장원 급제를 한 뒤, 부수찬·경상도 구황 경차관·의주 목사 등을 거쳤다. 제주 목사를 역임한 뒤에는 대사간·경상도 관찰사·6조의 참판과 판서를 지내었고, 명종 때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두루 거쳐 현달하였다(相公이란 표현은 재상을 지냈기 때문에 높여 부른 것임). 그러나 명종 13년 1월 18일자에 보면, “심연원의 사람됨이 본디 학식이 없고 탐오한 짓을 많이 하였다. 성품이 자못 자상하여 한때의 경박한 무리가 서로 헐뜯어도, 너그러운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심하게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여겼다.”고 사관이 쓰고 있다. 이두의 외(1988:191) 『한국 인명 자호 사전』에 심연원은 생몰(1491~1558)로 나와 있다.
- 22) 심연원 목사는 명륜당을 옛터에 그대로 다시 새로 지었으므로, 원문의 향교를 옮기다(移舊校)란 표현이나 옮겨 짓다(移創)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마땅히 ‘옮기다’(移)라는 말을 빼고 ‘거듭 짓다’(重創)로만 써야 옳다.
- 23)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선조 12년 7월 김태정(金泰庭)에게 정언(正言)을 제수한 기록이 있고, 선조 14년 1월 21일에 직강(直講)으로 있던 김태정(金泰庭)을 제주 목사에 임명한 기록이 있다. 12년 기록도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 24) 文廟 舊在州之域中, 觀德亭下, 一里許地. 而嘉靖十三年甲午(1534년), 沈相公連源, 出刺是州,

제주향교의 이건의 이유로 신찬은 “공자를 모신 문묘는 만년 동안 길이 우리러 모시는 곳인데 여염집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활쏘기 연습장을 마주하고 있어서 존중하고 받드는 뜻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다가 현종 9년(1668)에 이인(李王寅) 목사에 의하여 옛 가락천 서쪽으로 향교가 다시 이건 된다.²⁵⁾ 왜 원래 위치로 향교가 이건 되었을까? 경종 4년(1724) 큰 화재로 유실되었을 때도 가락천 서쪽의 “문묘가 제주성 한 가운데 있어서, 여염집들 사이에 시끄럽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선조 15년(1582) 김태정 목사가 지적한 향교 이건의 이유이기도 해서 왜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래 위치로 향교를 이 건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에 가락천 옛 향교 터를 돌아보니, 전성하던 때의 지난 자취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도다. 땅의 모습이 시원하고 높고 펼쳐져 있음은 신령스런 구역을 온전히 하였고, 골짜구니가 그윽하고 깊어 거주할 만 함은 산과 물의 경승이 있기 때문이다. 길한 기운이 청오경(靑鳥經)의²⁶⁾ 비결에 어울리고, 복스러움은 현묘한 거북의 점괘를 징험할 수 있도다.”라는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쓴 「새로 옮겨 지은 제주 향교의 상량문(新建 鄕校 上樑文)」에서 보듯이 가락천 근처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터 소위 명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수지리적인 판단에 의해 원래 위치인 가락천 서쪽으로 이 건된 향교는 경종 4년(1724) 정월에 성안의 큰 화재로 유실된다.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쓴 “제주 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을 보면 화재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때는 1724년(경종 4년) 갑진년 봄에, 탐라의 성 안에서 일어난 불이 번져 불어서 집채 40여 구를²⁷⁾ 태웠다. 남녀 백성들로서 죽은 이가 43명이었다. 그 때가 1월 21

越三年丙申(1536년), 以明倫堂, 建久將圯, 因其舊基, 撤而改構, 又爲手記其事, 以備後觀. 今以其記, 而究其當時, 齋舍之多寡, 施設之規制, 則班班稽可也. 然既移舊校之後, 只傳沈公之序, 而尙欠移創之記. 歲月既久, 迹隨時泯, 則耆舊無所傳, 後生無所考. 觀民風者, 烏可無慨然於斯乎?

蓋嘗聞於州士人之年耆者, 在萬曆九年辛巳(1581년), 節制使金公泰廷, 來莅州事, 首先留心於學校, 以爲聖廟萬世瞻仰之所, 而介處於閭巷之間, 又當射帳之場, 非所以致崇敬之意也. 卽有移建之志, 遂以轉聞于朝, 卜地於州城之東南隅, 嘉樂泉之在. 蓋取其地之幽曠, 且遠城市也.

金公尊聖之志, 如其其勤, 故新創之役, 不閱月而告成, 不幸丁憂遽歸, 未克記事.

25) 金錫翼, 『耽羅紀年』, 「(顯宗)九年 牧使李王寅 移建鄕校 于嘉樂川西舊址」.

26) 풍수를 보는 책으로서 조선조 때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최창조(1996) 『청오경, 금낭경』, 민음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27) 구(區)라는 말이 수를 세는 단위로 쓰이면, 땅을 작게 나눈 단위를 가리키는 게 일반이다. 구역이나 처소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중문 대사전』을 보면, 이 단어가 수량사로 쓰일 적에는 16되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여기서는 구(區)가 집채를 세는

일이었다. 제주의 가까운 바다에는 사나운 바람이 많다. 하루 전에도 큰 바람이 서남쪽으로부터 불어왔는데, 나무가 뽑히고 돌들이 굴러 내렸었다. 이 불에 이르자, 맹렬한 바람과 거센 회오리바람이 재빠르게 벼락치듯 쓸어 갔었다. 이도(二徒)의 서쪽 끝으로부터 산저(山底: 제주시 부둣가 산지천) 문 안쪽에 이르기까지 수 리 사이에, 좌우로 백성 집들이 촘촘히 물고기 비늘처럼 들어서 있던 것이 화재로 깨끗이 모두 비워졌다.

문묘가 제주성 한 가운데 있어서, 여염집들 사이에 시끄럽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다. 불길의 사방으로 불어오자, 형세가 아주 위급하였다. 내가 이성좌²⁸⁾ 관과 함께 서문 위에 있었는데, 군인들은 급히 보내어 물을 저장하고 이를 대비하였다. 밤 2경(21시~23시), 명륜당 서쪽 끄트머리 처마 판자에 튀는 불(飛火)이 불기 시작했다. 불꽃과 불똥들이 순식간에 타고르고 그을린 기와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녔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정전(正殿: 공자 위패를 모신 집)에까지 미치었다. 군졸·장교·아전·노비 등 둘러싸고 지키는 이들이 수십에서 백 사람이었으나,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내가 관과 의논하여, 장사(將士)로서 건장하고 과단성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재사(=기숙사)를 지키고 있는 유생들과 함께 하여, 불을 무릅쓰고 위관을 받들어 대피하게 하였다.

밤 삼경(23시~01시)에 채 못 미치어, 정전(正殿)과 명륜당 및 재사(=기숙사)·강청(=강의실)들이 한꺼번에 불에 타 없어졌다. 동무·서무(정전 좌우에 세운 행랑채)는 정전으로부터 몇 걸음 더 떨어져 있고, 남쪽에 가까이 있으며 조금 땅이 낮아서, 바람 부는 머리 쪽으로 향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불길을 면하였다. 재사 그릇·책상과 탁자·관모와 의복·서적들이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²⁹⁾

화재로 향교가 유실된 사실을 급히 임금께 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 자리에 향교를 중창하기 보다는 다시 이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터를 물색하게 된다. 향교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이건과 중창이 함께 이루어진 드문 예이다.

단위로 쓰였는데, 사망자가 43명이라고 한 점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을 “40여 채”라고 할 수 있다.

28)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동명 이인이 둘 올라 있다. 사부 학당의 유생으로서 이성좌는 숙종 15년 6월 임금이 급제를 내리었다. 숙종 15년 6월에 한 사람은 화순 현감을 지내고, 다른 한 사람은 곡성 현감을 지내었다. 경종 4년 제주 향교를 옮기는 일에 관련한 이상좌는, 아마 영조 1년 12월 15일 충주 목사로 있다가 그만 둔 듯하다.

29) 歲甲辰(1724년)春, 耽羅城內火, 延燒廬舍四十餘區, 人民男女死者四十三人, 時正月二十一日也. 州近海多惡風, 前一日大風 從西南來, 拔木走石. 至是火, 烈風激颺, 忽震盪. 自二徒西畔, 至山底門內, 數里之間, 左右人家, 緝緝如魚鱗者, 蕩然一空.

文廟在城之正中, 閭井雜沓之所. 火光四射, 勢甚危急, 余與判官李聖佐, 在西門上, 急發軍人, 貯水以備之. 夜二更, 明倫堂西角簷板, 爲飛火所着, 芒熒閃爍, 烘瓦亂飛, 俄頃之間, 延及正殿. 軍校·吏奴 環而守者, 數十百人, 莫敢前.

余與判官議, 令將士健果者, 與守齋儒生, 冒熒焰, 奉位版 以避之. 未及三更, 正殿及明倫堂暨齋舍·講廳, 一時燒燼. 東西兩廡, 距聖殿數武, 而以其近南稍低, 不爲風頭所向, 故免焉. 至於祭器·床卓·冠服·書籍, 無一遺者.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쓴 “제주 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을 보면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풍수를 보는 이들 몇 무리를 불러 모아, 날마다 함께 나다니며, 제주 성의 안팎에 있는 땅들을 널리 찾아보았다.”는 언급처럼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터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슬프고 슬프며 통탄스럽도다! 역사가들이 궁궐이나 전우(殿宇:임금이 사는 건물)를 기록한 바에서, 재앙을 써 놓은 것이 어찌 끝이 있으리오마는, 문묘가 화재를 입었음은 아직 전에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는 책에 기록하여 놓은 이래 아직 한 번도 없었던 변고이다.

다음날 아침 관관 및 여러 유생들과 함께 오성³⁰⁾·십육철³¹⁾ 신위를 받들고 임시로 동무(東廡:문묘 옆 동쪽에 있는 행랑)에 모시었고, 동무에 있던 여러 신위들은 함께 서무(西廡:문묘 옆 서쪽에 있는 행랑)에 모시었으며, 화를 당한 연유를 모두 적어 급히 임금께 아뢰었다.

내가 문묘의 사체가 지엄하고 또 숭경함을 생각하니, 땅을 고른다면 웅당 조용하고 한가로우며 넓고 트인 지역이라야 하며, 불을 지피는 연기들이 둘레에 가득하고 닭·개 소리들이 시끌벅적한 곳이어서는 아니 됨이 명백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갖 귀신들이 옹호하고 이를 도와서 우리 공자님 집을 능히 보존해 주지 못하였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아득하고 어두운 이치는 헤아려 찾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할 바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또한 어찌 (탓할 바) 말할 것이 없으랴? 하물며, 새로이 화재의 변고를 겪게 되자, 사람이나 귀신이나 비참하고 두려워한다. 잿더미를 쓸어 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는 것이 어찌 보통 사람의 마음에 편안한바 되리오?

여러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풍수를 보는 이들 몇 무리를 불러 모아, 날마다 함께 나다니며, 제주 성의 안팎에 있는 땅들을 널리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가히 뜻을 둘 만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³²⁾

30) 다섯 성인은 공자와 네 분의 성인으로서, 안자(顔淵), 증자(曾參), 자사(孔伋), 맹자(孟軻)이다. 『제주 유맥 육백년사』 171면 이하 및 1098면 이하에 부록으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31) 16철은 공자의 제자 10철과 송나라 때의 어진 선비 6현을 가리킨다. 10철은 논어 선진편에서 공자가 “진·채(陳·蔡) 땅에서 나를 따르던 이들이 모두 내 곁에 있지 않구나!”라고 탄식하던 대목에서 처음 등장한다. 안연은 이미 5성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를 빼고, 민자건(閔損), 염백우(冉耕), 증궁(冉雍), 재아(宰父), 자공(端木賜), 염유(冉求), 자로(또는 계로, 仲由), 자유(言偃), 자하(卜商), 자장(顓孫師)이다. 6현은 주엄계(周惇頤), 정명도(程顥), 정이천(程頤), 소강절(邵雍), 장형거(張載), 주자(朱熹)이다. 숙종 28년(1702년)에 제주 목사로 왔던 이형상의 『남한 박물』에는 향교에 20위가 모셔져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제8권 369면 ‘문묘’ 조항에 보면, 광복이 된 뒤 1949년 전국 유림 대회에서는 중국 명현들의 위판을 매안(埋安)하기로 하고, 우리 나라의 18현의 위패만을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32) 噫噫痛矣! 史家所錄, 宮闕·殿宇, 書災者 何限, 而文廟被火, 未或前聞. 此載籍以來, 所未有之變也. 翌朝, 與判官及諸生, 奉五聖十六哲神位, 權安于東廡, 東廡諸位, 同安于西廡. 具述禍故, 馳啓以聞.

터를 물색하던 중에 가락천 동쪽으로 결정되고 신유익(愼惟益) 목사에 의해 이진 작업이 이루어진다.³³⁾ 다른 곳도 아닌 원래의 가락천 서쪽에서 멀리 안간 가락천 동쪽으로 터가 결정된 것도 가락천 근처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유익 목사가 쓴 “제주 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에 이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진 작업은 1725년(영조 1년) 2월에 완료된다.³⁴⁾

비로소 지도를 꺼내어 놓고 생각해 보다가, 가락천 위에 있는 옛 터를 얻었다. 대개 한라산 동쪽 산허리가 북쪽으로 꺾이어 구불구불 다가오다가 한데 모이며 웅장하고 도타운데, 광양 땅과 함께 달려오다가 운주당(運籌堂)에 이르러서는 솟구쳐 큰 구름을 이루며, 그윽한 듯 갈아 놓은 듯 골짜기와 계곡을 이루었다. 바위와 작은 산 등성들이 빼어나고, 샘과 암석이 맑고 기이하다. 옛날 ‘그윽하고 한가로우며 넓고 탁 트인 곳’이라고 한 바가 여기에 갖추어져 있도다! 허물어져 있는 섬돌과 깨어진 벽돌들이 가시 수풀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아가서 이를 살펴보니, 건물의 배치와 방향들을 가히 헤아려 알 수 있었다.

문묘의 터 자리가 반드시 별 바른 쪽을 보게 하는 것은, 남면(南面)하여 공자님을 높이려는 것이니, 예가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나 땅의 형세가 곳에 따라 같지 않으므로, 육지에 있는 주·현에서도 모두 남쪽을 향하는 제도를 지킬 수 없는 곳도 역시 많다.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제도만을 고집스럽게 지키어서, 봉우리와 등성들이 (신하들이 임금 뵈듯) 조회하는 것을 놀려 버린다거나, 물의 형세가 (앞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등지게 된다거나, 집 모양새의 비뚤고 바름과 평평하고 기움을 고려할 겨를이 없다면, 그 또한 지혜가 천박한 것이다. 이전에 여러 번 짓고 여러 번 옮긴 것이 어찌 까닭이 없었으랴? 풍수에 대한 논설이 비록 논할 바 못 되나, 천년 동안 제사 지낼 땅이므로, 또한 어찌 가히 진실로 오래 가기를 꾀하지 않겠는가?

의논하여 능히 결정되었으므로, 드디어 (이런 정황들을) 차례대로 열거하여 몇 가지 다른 일과 함께 조정에 청하였다. 이미 또한 목수들을 보내어 한라산에 들어가 재목을 수천 그루 베어 내었고, 지도리·문지방·치마·서까래의 재목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가마터 세 곳을 설치하여 기왓장 무릇 4만여 장을 얻었으며, 쇠붙이들 어지간한 무게를 육지로부터 사들여 왔다. 몇 개월 안에 집 지을 조치가 거의 마려되었다.³⁵⁾

余惟聖廟事體，至嚴且敬，其擇地，當於幽閑廣爽之城，不當於煙火周匝・鷄犬亂聒之場者，明矣。天地百神，不能擁護而左右之，以保我夫子之宅，茫昧之理，有難究測，而人事之未盡，亦豈無可言者哉？況新經火燬，人神慘沮，掃灰重營，豈常情之所安乎？諸人以余言爲然，遂招聚相地者數輩，日日同出，遍求於城之內外，無一處可意者。

33) 金錫翼, 『耽羅紀年』, 「(景宗)四年…秋 牧使愼惟益 移建鄉校于嘉樂川東舊址 時大成殿 明倫堂及齋舍 講堂并被火燬 惟東西兩獲免 因啓請移建鄉校」. 김석익은 이진 시기를 1724년(경종 4년) 가을로 쓰고 있으나 그것은 이진 작업이 시작된 시기이고 신유익의 기록에 의하면 이진이 완료된 것은 1725년(영조 1년) 2월이다.

34) 1724년의 기록에 1725년의 일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1841년 이원조 목사가 초고를 적어 둔 <신수 탐라지>의 학교 조목에 들어 있는 원문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35) 始出輿誌而攷之，得嘉樂川上舊基焉。盖自漢東麓北折，逶迤而行，磅礴雄厚，與廣壤竝驚，至

유생들이 향교 중창을 건의하면 현감이 이를 장계로 목사에게 알리고, 목사는 이 내용을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받게 되면 서울에서 향과 축이 내려오게 되고 이로써 날을 점쳐 위패를 옮겨 드디어 향교 중창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제주향교가 화재로 유실되어 임금께 중창을 요청했지만 허락이 늦게 이루어졌음을 신유익 목사가 쓴 「제주 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로부터 회신이) 늦어져서 가을이 되도록 임금님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드디어 사람을 보내어 예조에 공문을 이첩하여 이를 물어 보았다. 대개 장계에 끝에 요청한 쌀·책·노비 등의 일은 의정부(廟堂)에서 복주하여³⁶⁾ 일체를 시행하도록 재가를 얻어내었지만, 장계를 시령 위에 올려놓아 묵히게 되어, 해당 부서인 예조에서도 똑똑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9월 그믐날에 비로소 향과 축(香·祝)이 내려왔다. 드디어 여러 목수·기술자들과 계약을 하고, 토지 귀신에 제사 지내고, 날을 잡아 일을 시작하였다. 때 마침 한겨울을 맞았으나, 날씨가 심히 몹이 떨릴 만큼 춥지도 않았고, 장인들의 손도 오그라들고 부르트는 병도 없었다. 백성들이 부역에 나움이 마지 자식이 아버지 일에 나오는 듯하였다.

비로소 나는 제주 사람으로서 재목이 되고 명망이 있는 이를 뽑아서 감독하는 임무를 맡기조가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양잠과 고상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근면하고 또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공인과 장인의 능력 여부를 살펴서 이들에게 일을 주고, 잡역하는 이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들에게 막일을 맡겨 주었다. 쌀·쇠·숯들의 쓰일 데가 많은 듯하였으나 창고 관리를 오로지 각별히 하여 나뉘어진 털오라기 하나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다. 가히 ‘맡긴 바를 다 처리하여 뒷집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다.

이성과 판관도 매일 공사장으로 나와 손수 널삼을 잡고서, 바람이 차갑다 핑계 대며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게 사람들을 권장하였으니, 마음 씀씀이 또한 정성스럽도다.

1725년(영조 1년) 2월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완성되었다. 3월 첫 정(丁)일에 위판들을 명륜당의 큰 마루와 동·서 협실로 옮겼다. 정전(正殿)에 옮기지 않고 명륜당으로 옮긴 까닭은, 장차 동쪽과 서쪽에 무랑(廡廊:정전 양쪽에 동서로 있는 행랑)

運籌堂，峙而爲一大陵，窈然而成洞，研然而成壑，嚴密秀拔，泉石清奇，嚮所謂‘幽閑廣爽者’，於是乎備矣。頽砌破甍，隱見於荊莽之間，就而諦之，建置方位，可按而知也。

文廟基地，必用面陽者，欲以南面，尊夫子，禮固然矣。然地形隨處而不同，內地州縣，不能悉遵向南之制者，亦多矣。膠守向南之制，而峰巒之壓朝，水勢之向背，堂局之斜正穩仄，未暇顧焉，其亦知之爲淺矣。前日之屢建屢遷，豈無以乎？堪輿之說，雖不足論，而千秋俎豆之地，亦何可苟然不爲永久之圖乎？

議以克定，遂論列，以請于朝，兼有數件事。既又遣匠，入山取木數千章，椳闔楣椽之材，不數也。設瓦窯三所，得瓦凡四萬餘章，質鐵物如千斤於內地，數月之內，措置幾辦。

- 36) 복주(覆奏)는 복심(覆審) 상주(上奏)의 줄임말이다. 특히 사형 죄를 내릴 경우에 세 번이나 복심하는 것이 상례였다. ‘복심’은 자세히 살피다는 뜻이고, ‘상주’는 임금께 아뢰는 뜻이다. 여기서는 신유익 목사가 전라 감영을 통해 예조에 올린 장계를, 의정부에서 자세히 알 뒤 상황을 살펴본 뒤 임금께 아뢰었다는 뜻이다.

을 지어 갈 적에, 아마 시끄러울 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날로 (화재를 면한) 동무와 서무의 옛 건축 자재를 철거하여 문묘 트랙의 동쪽과 서쪽에 옮겨 세웠는데, 기둥·들보·지계문·문지방들의 썩고 허물어진 것들은 모두 새것으로 바꾸었다. 신문(神門)·향문(香門)·동쪽과 서쪽의 각문(角門: 정문 옆의 작은 문)·동쪽과 서쪽의 제사(기숙사)·강청(강의실)·전사청(典祀廳: 제사 물건들을 두는 곳)·주고(酒庫: 술 창고)들은 몰자들의 공급과 수요의 차례대로 세웠다.

그 크기와 제도는 모두 이전 향교를 본받아서 이를 맺고 마감하였지만, 치밀하고 화려함이 더 넘으면 넘었지, 미치지 못할 바 없었다. 담벽이 높이 솟아 있고, 트랙이 넓고 밝으며, 섬돌과 벽돌들이 한결같이 가지런하고 견고히 맞물려 들어감이 옛날에 비교할 바 아니었다. 보례(각각 벼와 기장을 담는 제사 그릇으로 모양이 서로 반대임)·변두(굽 높은 제사 그릇으로 각각 마른 음식과 물기 있는 음식을 담음)·존작(술잔)·쾌안(책상)들이 이에 이르러 또한 대략 갖추어졌다.

사월 마지막 정(丁)일에 다섯 성인 이하의 위관을 모두 모셔 정전(正殿)과 동무·서무에 안치하고, 몇몇한 의례대로 제사를 지내 사유를 알리었다. 유생 4백 남짓 사람들이 정전과 무랑(廡廊) 사이를 오르내리었고, 당재(堂齋) 안에서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들을 지었다. 어떤 이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다시 흥성한 때의 기상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다.³⁷⁾

그 후 영조 30년(1754) 홍구서(洪九瑞)³⁸⁾ 목사는 향교가 비습진 곳에 있다하여 광양 쪽으로 이건하였는데 이로써 제주향교의 4번째 이건이었다. 이 에 대해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에는 영조 31년(1755) 홍태두(洪泰斗) 목사가 이건을 하였다³⁹⁾고 했지만 홍구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754년 홍구서 목사가 쓴 「새로 짓는 향교에서 들보를 들어올리는 글(新建 鄉校 上樑文)」에는 왜 광양으로 이건하였

37) 而荏苒至秋, 成命不下. 遂專人移牒漁春曹, 以訊之. 蓋狀末所請米穀·書籍奴婢等事, 廟堂覆奏, 一切施行, 而狀本因致束閣, 該曹邈然不知矣.

九月晦, 香祝始下來. 遂乃約衆工, 祀土地, 剋日始事. 時值隆冬, 日氣不甚栗烈, 匠手亦無皴瘃之患, 民之來役者, 如子趨父事, 如余欲遶州人之材而有望者, 昇監董之任. 僉曰, “非梁岑·高尚元, 不可.” 二人者, 勤而且幹, 察工匠之能否, 而授之以事, 隨役夫之多寡, 而爲之程課, 糧穀鐵炭, 需用夥然, 而筭庫惟謹, 分毫無溢費. 可謂不負所寄矣. 判官日至役所, 躬操版鍤, 以勤之, 不以風寒少倦, 用心亦勤矣.

明年(1725년)二月, 大成殿·明倫堂成. 三月上丁, 移安于明倫堂之大廳及東西夾室. 不于正殿, 而于明倫堂者, 以將建兩廡, 恐致喧譁也. 卽日撤兩廡舊材, 移建于廟庭之東西. 棟梁戶闔之腐壤者, 悉易而新之. 神門·香門·東西角門及東西齋舍·講廳·典祀廳·酒庫, 供需次第建立. 其規模制度, 悉倣舊校而結構之, 綴麗有加, 無不及焉. 墻墉崇高, 庭宇曠朗, 階砌磚甃, 齊整堅密, 非向日之比矣. 簠簋·籩豆·尊勺·几案之屬, 至是而又粗備焉.

四月季丁, 奉安五聖以下位版, 于正殿及兩廡, 行祭告由, 如常儀. 儒生四百餘人, 升降於殿廡之間, 雍容於堂齋之內. 或有歎息者, 曰 “不圖今日復見盛時氣像!” 云.

38) 『조선 왕조 실록 CD』에 의하면 영조 35년(1759년) 춘당대 시험에서 장원으로 합격한 뒤, 영조 42년 정언과 지평을 거쳐, 영조 50년 첨지중추부사, 51년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39) 金錫翼, 『耽羅紀年』, 「(英祖)三十一年…洪泰斗以文廟卑濕 移建鄉校于廣壤 踵前牧使金夢奎議也」.

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K C I

다만 문묘 터가 길상함을 잃었고, 또 하늘이 내리는 화재를 만나 재앙을 알렸도다.⁴⁰⁾ 치열한 화염으로 인해 장식을 한 용마루에까지 불길이 뒤섞이며, 거의 성인의 영혼을 놀라게 하여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성스런 터가 갑자기 가까운 언덕으로 옮겨 오히려 지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탄식이 있었도다. 뜨락 앞에는 급한 여울이 흘러 문묘에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었고, 문묘 뒤에는 우뚝 벽이 솟아 있어 굴거리나무 머리가 암석에 눌릴 우려가 있었도다.

논의가 옮겨 지음이 마땅하다는 데에 미치고, 유생들이 청원하는 이가 천백 사람이었으며, 성인을 흠향하는 사체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목사들이 임금께 아뢴 것이 두세 번이었도다. 곧 임금님⁴¹⁾ 내리신 응락(兪)의 말씀을 받들어, 다행스럽게도 제주시 광양 땅에 정결한 곳을 얻었도다.⁴²⁾

광양으로 이진한 이유가 “지리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아마도 신유익 목사 때의 화재의 여파로 터가 좋다는 가락천 부근에 대해 기억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락천을 부근을 택한 이유도 풍수지리적인 것이었고 또 광양으로 이진하는 이유도 모두 풍수지리에 근거한다. 1754년 홍구서 목사가 쓴 「새로 짓는 향교에서 들보를 들어올리는 글(新建 鄉校 上樑文)」에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옛터가 용신(龍神)의 점박이 뒤섞임(駁雜)임을 생각한다면, 어찌 을·신(乙辰: 동동남, 동동남쪽) 방향의 두 줄을 쓰리오? 새터의 자리 형세가 빛남을 축하하고, 이에 남쪽과 북쪽의 한 맥을 취하도다. 이제 한해의 일이 곡식 여물에 이르자, 이에 터 다지는 일을 시작하도다. 천장이 되는 재목들을 이에 옮겨오니, 백성들 힘에서 농사 때를 빼앗은 탄식이 없었고, 여러 장인들이 톱질하고 다듬어냄을 빠르게 하니, 사람 공력으로 며칠 되지 않아 완성을 보게 되었도다.

터를 고르는 데 복된 징험이 있음은 이미 거북 점의 조짐에 드러나 먹줄을 놓았고, 하늘에서 향축이 내려와 장차 정성어린 희생과 폐백으로 제사를⁴³⁾ 올리는도다. 거의 문묘의 모습이 크게 편안한 듯하며, 빛남이 문물을 가히 적을 수 있도다. 집터의 토대가 둥글고 바르게 뒹은 장단을⁴⁴⁾ 세 등급이나 넘어섰고, 주위를 잘 둘러

40) 이 대목은 앞에서 신유익 목사 때에 문묘가 불에 탄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41) 겹겹이 둘러싸인 대궐, 곧 구중궁궐이 중신(重宸: 겹겹 싸인 대궐)이므로, 임금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42) 第緣廟址之欠吉, 又值天火之告災;
烈焰交烘於雕甍, 幾驚聖靈之靡妥, 神基猝遷於近阜, 尚嘆地理之不佳;
庭前急湍, 寢殿致滲水之患, 廟後峭壁, 橫題有壓石之憂;
論及時移建之宜, 章甫之陳請者千百, 念享聖事體之重, 牧伯之啓達者再三;
才承重宸之兪音, 幸得廣壤之淨地;

43) 천(薦)은 희생을 올리지 않고 지내는 제사이고, 연(禮)은 하늘에 드리는 제사라고 나와 있다.

44) 경전에서 노나라 대부 장문중(臧文仲=臧孫長)은 도를 넘게 사치하고 꾸며대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규모가 큰 단(壇)을 장단(臧壇)으로 부르고 있는 듯하다. 『한국 한자어 사전』에 ‘臧’의 훈을 ‘착하다(좋다)’로 달았는데, 이 뜻이라면 좋은 단이 된다.

돌로 쌓음은 몇 길 되는 성묘의 담장을 본받았도다.

한라산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완전히 공자 태어나신 이구산의 높고 빼어남과 같고, 영주 고을의 바다가 길게 흘러 사수(泗水) 강물의 맑고 드넓음과 한데 어울리도다. 후학들이 쳐다보며 의지할 곳을 얻어 여러 선비들이 기뻐하고, 앞선 성인들을 모셔 받드는 도리를 다하여 온 섬이 삼가 기리는구나.⁴⁵⁾

그러나 순조 27년(1827) 심영석(沈英錫)⁴⁶⁾ 목사는 광양은 사면으로 바람을 받아서 공부하는데 불편하다 하여 조정에 지금의 자리인 용담동 쪽으로 향교 이건을 다시 품신하고 허락을 받는다. 1827년 심영석 목사가 쓴 「향교를 옮겨 짓는 상량문(鄉校 移建 上樑文)」에는 이건의 구체적인 이유로 “저 광양 땅의 문묘 터를 돌아보면 또한 영구히 길한 땅은 아니로다.”라는 것을 들고 있다.

무릇 이곳 선비들의 논의를 말한다면, 70년 동안 답답함을 탄식하며 향교를 옮겨 지으려는 마음이 두루 간절하였도다. 향교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데에 터전을 두고 있으므로 억만년 동안 끝없어야 하는데, 다행히 거듭 새로 짓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도다. 오랫동안 하늘과 땅이 감추어 둔 곳인데, 더욱이 좋은 날과 시간을 점치도다.

생각하건대, 교궁(校宮: 문묘)은 공자님의 영혼이 쉬는 곳이며, 바다 섬 여러 선비들을 이끌어 가르치는 곳으로다. 하나라에서는 상(庠)이라고 하고, 은나라에서는 서(序)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벼슬 없는 임금님(=공자)을 높이어 사모하고, 겨울에는 글을 외어 암송하고 여름에는 거문고 뜯으며, 청금들이 보고 느끼는 곳으로다. 예가 향기 높은 봄 가을 왕성한 절기에 갖추어져 있고, 덕화가 이미 많은 인재들 속에 자유(子游)·자하(子夏)와 같이 여러 여진 선비들처럼 스며들어 있도다.

다만 문묘 터자리가 길함이 없으므로 인하여서, 문묘가 여러 번 옮겨다님을 면

45) 想舊址龍神之駸雜，焉用乙辰之雙行，慶新基局勢之光明，斯取子午之一脈；

逮茲歲事之登稔，爰有土役之經營；

千章之材木是遷，民力無奪時之歎，衆匠之鉅斲斯亟，人功見不日之成；

擇地休徵，既著龜兆之食墨，自天香祝，將虔牲幣之薦禋；

庶乎，廟兒之孔安，煥然，文物之可述；

土臺圓正，邁臧壇三級，石築周環，傲聖牆數仞；

擎峯聳峙，宛然尼丘之崢嶸，瀛海長流，渾如泗水之清闊；

得後學瞻依之所，多士歡欣，盡先聖崇奉之道，一島欽頌；

46) 『조선 왕조 실록 CD』를 찾아보면, 심영석은 정조 24년 3월 진시에 합격하여, 4월 진시에 나아갔고, 순조 22년 7월 진라 좌도 암행어사를 지내었다. 순조 27년(1827년) 6월 15일자를 보면, 전최(殿最)의 계본(啓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신본(申本: 왕세자가 임금 대신 정무를 볼 때 왕세자에게 올리는 글)으로 잘못 올리었다고 하여, 제주 목사의 관직을 삭제당하였다. 순조 29년 7월에는 부호군으로서 호조판서 김교조를 탄핵하는 상소를 내었다가 복청으로 유배를 갔고, 이듬해 8월에 유배가 풀렸다. 『제주 유백 육백년사』 558면 상단 좌측에 심영석 목사의 기념비 사진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심영석 목사가 향교를 이 건한 비 - 스스로 좋은 터를 점치고 문묘를 이 건하여, 근본을 도와 심었으므로 영세에 공을 세우다”

하지 못하였도다. 큰 바다의 한 가운데에서 물과 불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이 때때로 경계해야 함을 알리었고, 한 성의 안팎에서 토목 공사로 사람들이 힘들여 부역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도다.

저 광양 땅의 문묘 터를 돌아보면 또한 영구히 길한 땅은 아니로다.

봉우리와 산이 뻗뻗하게 겹쳐 있고 땅의 모양새가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며, 나무가 뿔뿔하고 기왓장들이 날라가며 집채 곁에서는 바람이 들어오고 위로는 비가 새었도다. 집을 앉힌 방향도 격식에 맞지 않으니 가히 지리의 아름답지 않음을 알 수 있도다. 해마다 고쳐야 하였으니 매번 위패들을 자주 받들어 옮겨야 하는 탄식이 있었도다. 사림에서 향교를 옮겨 짓자고 요청한 것이 이에 목사가 부임하는 초반부터였도다. 문묘의 모양새를 우리러 살펴볼 적에, 어찌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처럼 한결같으리오? 임금께 아뢰도록 허락함은 아마 또한 어리석은 내가 보기에 도미안하기 때문이었도다.

한라산을 돌아보면 북쪽으로 내닫는 산맥 줄기가 있는데, 길한 땅이 서문 밖에 있도다. 산의 형세가 멀리서 겨안는 듯이 문명(文明: 문채롭게 밝아짐)이 활짝 피어날 모습이며, 바다 색깔도 깊이 감추어져 있어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옛날부터 애기되었다고 하는도다. 거북으로 점을 쳐도 운이 따르고 모든 백성들도 따르는도다. 저 문물(文物)이 장차 반짝반짝 일어날 것이고, 일세와 이세를 거쳐 만세에 이를 것이로다. 다행스럽게도 좋다고 허락하는 임금님 뜻을 입었도다.

드디어 문묘를 옮겨 짓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경계할 것은 백성들의 농사철을 뺏지 않는 것이로다. 백성들의 힘이 많이 소비될까 봐 공력들임을 며칠 넘지 않게 기약하였으며, 무릇 이 일이 빠르게 이루어졌도다. 뒤로는 물이 흘러 내려가고, 앞으로는 산을 바라보게 되니, 비로소 담장을 마주하여 서 있게 되었도다. 집채가 서쪽으로 앉고 동쪽을 향하게 되니, 지금에야 눈앞의 세계가 확 트이어 마음을 경영할 수 있게 되고, 선대의 성인들을 극진하게 받들어 모심은 눈앞에 우뚝하도다. 진실로 후학들이 우리러 의지하겠고, 큼지막하게 문묘의 제도가 새로워지도다. 펴 듯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니, 애오라지 내가 들보를 닦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게 노래를 부르리로다.⁴⁷⁾

47) 鄉校 移建 上樞文

述夫土論, 有七十年, 齋鬱舉切, 移建之心, 校基奠, 億萬歲無疆, 幸見重新之美. 久矣天藏而地秘, 矧乎日吉而辰良.

念校宮夫子之妥靈, 爲海島多士之率教, 夏曰庠, 殷曰序, 素王之奠慕在茲, 冬則誦, 春則絃, 青衿之觀感有所, 禮咸備於芬苾, 春秋兩丁, 化已洽於菁莪, 游夏諸子. 第緣基址之欠吉, 未免廟宮之屢遷, 大海中間, 水火之天災時警, 一城內外, 土木之人力頻興.

瞻彼廣壤之廟基, 亦非永久之吉地. 峰稠嶂疊, 局勢前高而後低, 樹拔瓦飛, 棟宇旁風而上雨, 坐向失格, 可見地理之不佳. 修改連年, 每歎神位之頻奉, 所以士林移奉之請, 乃在牧伯莅任之初. 廟貌瞻奉審之時, 奚但衆論之如此籲狀? 許啓聞之學, 抑亦愚見之未安.

顧攀山有北走之枝, 而吉地在西門之外, 山勢遠拱, 文明開朗之形, 海色深藏, 含包蘊蓄之狀, 自古有云云之說. 龜從筮從, 庶民從, 伊文物, 將彬彬而興, 一世二世, 至萬世, 幸蒙俞允之聖旨. 遂得經始於宮功, 戒在奪時, 恐民力之多費, 功其不日, 庶此役之速成, 背流臨山, 始若面牆而立也, 坐西向卯, 今焉眼界之豁然, 心上經營, 克盡先聖之崇奉, 眼前突兀, 允爲後學之瞻依, 奠焉廟制之載新, 躍如人情之胥悅, 聊以我唱助學修樑,

그러나 심영석 목사는 임기가 차서 떠남에 따라 후임으로 온 이행교(李行敎) 목사가 지금의 자리인 용담동 쪽으로 이긴 작업을 완성하였다.⁴⁸⁾ 1828년 이행교(李行敎)⁴⁹⁾ 목사가 쓴 “향교를 옮겨 지은 기록”이 이것을 증거한다.

정해년(1827년, 순조 27년) 중추에 내가 탐라목의 부임지로 오자, 전임자인 심영석 목사가 향교를 옮겨 짓는 일로 이미 임금께 아뢰어 윤허를 얻었는데, 뜻밖에 급히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향교를 이긴다는 까닭을 전임자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광양의 옛터는 산을 눈앞에 두고 바다를 등지고 있어서 땅의 형세가 거꾸고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큰 비로 집이 곧 무너지려고 하여 고쳐 짓는 일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제주의 청금 유생 수천 사람이 내가 막 부임해 왔을 때에 한꺼번에 호소하였는데, 모두 이러한 뜻을 가진 지가 70년 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단 돌아가신 영혼들이 탄식을 머금을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도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영의정을 지내신 저의 8대 할아버지가 이곳에 부임하였을 때에 명륜당을 창건하여, 문묘에 크게 공헌하였었는데, 아버지 일을 아들이 이어가는 뜻으로⁵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도 역시 옛일에 감동하여 할아버지의 뜻을 잇는 마음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옮겨 짓는 일을 시작하고, 좋은 터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제주 성의 서쪽 땅 모습은, 한라산의 산맥 한 가지가 북쪽으로 달리다가 동쪽으로 돌아서 있으며, 산의 형세가 멀리서 꺾어 두르는 듯이, 황홀하기가 마치 별들이 바둑판처럼 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색깔이 깊이 감추어져 고래 같은 파도와 악어 같은 격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명(文明: 문채롭게 밝아짐)이 활짝 피어나고 너그럽고 온화함을 당겨 안은 듯하여, 바로 성인의 문묘로 영혼을 편안하게 할 곳으로 합당합니다. 여러 기술자들을 감독하여 부지런히 하도록 시키면 여러 날 되지 않아 완성될 것입니다.”

나도 이를 응낙하고 다음처럼 대답하였다. “제주의 큰 일로서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감히 받들어 주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심영석 목사가 떠난 뒤 도감 정원집·훈장 오점·장의 현언범과 김웅길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여 정성을 다하게

48) 金錫翼, 『耽羅紀年』, 「(純祖)二十七年 冬 牧使李行敎 移鄉校于西域外 初 牧使沈英錫 以文廟基址 四面受風 啓請移建 未作而罷去 李行敎踵而成之 官隸高相信 納付基地」.

49) 『조선 왕조 실록 CD』에 의하면 순조 12년에 황해도 강령 현감을 지낼 적에 치적을 세웠고, 순조 27년 4월 19일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를 거쳐, 이해 가을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뒤 순조 31년 10월 3일 전라도 병마 절도사, 32년 12월 1일 함경북도 절도사를 거쳐, 헌종과 철종 때에 황해도와 평안도의 병마 절도사를 지내었다. 『제주 유맥 육백년사』 559면에 이행교 목사 기념비 사진이 실려 있다. “이행교 목사가 사학을 고쳐 지은 비 - 학교 옮기기는 큰 일인데, 마음을 다하여 규식대로 지었도다. 그 남을 힘을 미루어 삼학까지 고쳐 지었도다.”

50) 서경 주서의 대고(大誥: 널리 알림)에 나오는 구절인데, 주나라 성왕이 반란을 일으킨 무경 일당을 치려고 하였지만, 신하들이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자, 신하들을 설득하는 대목에 나온다.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고 하여 이미 방법을 이루어 놓았으나, 그의 아들이 집터도 댈지 않고 있다면 집이 엮어 만들어지지겠소?”

하였다. 시월 어느날에 비로소 정전(正殿)과 동무와 서무가 건립되었다. 그 밖의 집채들과 재실·부엌이 될 곳도 차례로 새롭게 세웠다.

감독하여 독촉함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이 모두 기쁘게 나와 일을 하였다. 삼동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따뜻하였으므로, 모두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틀 우려도 없었다. 반년만에 흙을 퍼담고 재목을 깎아 '새둥지들이 지붕을 이어댄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빠르게 이루었으니, 아마 조물주가 이를 도운 듯하다.

그 다음해(1828년, 순조 28년) 5월 낙성하는 잔치를 열어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전임 심영석 목사가 한자리에 같이 앉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드디어 이를 적어 둔다.⁵¹⁾

이행교 목사에 의해 지금의 자리인 용담동 쪽으로 이긴한 제주향교는 이후 여러 번 중창되는데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850년, 1872년, 1897년 등에 이루어진 작업이 대표적이다. 1850년 김영락(金英樂) 훈장이 쓴 「향교 중수기(鄉校 重修記)」에 중창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비가 새고 출입문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향교에 비가 새고 습기가 찼으며⁵²⁾, 출입문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늘 미안하게 생각한 지 오래였지만, 아직 서두르지 못하였다. 어찌나 [다행인지], 장인식 목사가⁵³⁾ 이를 개연히 여기어서, 돌로 바꾸어 벽돌을 깔으로써, 해마다 삿자리를 고쳐야 하는 수고를 없애었고, 재목을 모아 출입문을 수리하고 매일매일 학교에 드나드는 길을 넓히었다. 뜨락 아래의 행단(杏壇)과 문밖의 홍살(붉은 살)이⁵⁴⁾ 일시에 눈앞에서 돌올히 높아졌다. 만약 어진 수령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가히 급이 이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 고쳐지은 공덕이 더욱 빛날 뿐이다.⁵⁵⁾

51) 歲在丁亥(1827년)仲秋, 余到耽羅任所, 前牧使沈公英錫, 以鄉校移建事, 已狀聞蒙允, 匪意徑遞矣. 余聞移建(之)由於舊使, 則曰,

“廣壤舊基, 面山背海, 地勢顛倒, 猛風怪雨, 屋宇輒頽, 修改之役, 無歲無之. 島中青衿, 累千百人, 齊籲於蒞任之初, 蓋此意已七十餘年之久矣, 非但逝者茹歎, 生者齋鬱. 以我八代祖, 議政公蒞此時,¹⁾ 棚建明倫堂, 大有功於校宮, 責之以肯堂肯構之義. 我亦有感舊, 繼述之意, 多費經營, 得一好基址, 於州城之西, 漢拏一枝, 北走東回, 山勢遠拱, 悅若星羅棋布, 海色深藏, 不見鯨濤鰲浪, 文明開朗, 控抱蘊藉, 政合聖廟妥靈之所, 令其董飭群工, 以期不日之成.”

余應之曰, “州之大事, 莫此若也. 敢不奉以周旋?”

公去後, 使都監鄭遠集·訓長吳霽·掌議玄彥範·金應吉, 竭¹⁾蹶幹事. 十月(某)日, 始建正殿·東西廡, 其餘堂室·齋庖之所, 次第新構. 不待董督, 民皆樂赴. 三冬和煖, 舉無龜手之患, 半載掄榘¹⁾, 倏成鳥葺之美, 殆若造物者相之.

其翌年(1828년)五月, 設落宴, 與人民歡, 恨不與前使同席而志喜也. 遂爲之記.

52) 아마도 양무(兩廡)에 비가 새었거나, 또는 재사(齋舍)와 양무(兩廡)에 비가 새었을 법하다.

53) 김석익의 초고본 『탐라 관풍안』에 의하면, 장인식 목사는 헌종 14년(1848년) 3월에 도임하여 철종 1년(1850년) 6월에 이임하였다. 『고종·순종 실록 CD』에 의하면, 그후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병마 절도사를 거쳐 함경남도 병마 절도사를 지내었으며, 고종 8년에 전라 우도 수군 절도사를 지내었다.

54) 아마 홍전(紅箭)이나 홍미(紅繭)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홍살문’의 홍살을 가리킨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교류를 했던 생원 강기석(姜琦奭)이 1872년에 쓴 「향교 중수기(鄕校 重修記)」에도 중창의 이유가 비가 새고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었다.

향교와 문묘가 이곳에 옮겨 지어진 지가 아직 채 50년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제례를 거행하는 집은 위에서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올라오며, 양무(兩廡: 동쪽과 서쪽의 무랑)가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비뚤어져 있소. 또 무릇 다른 집들도 발라놓은 벽들이 허물어져 지탱하지 못하고 있소. 비단 사림들이 탄식을 머금게 될 뿐만 아니라, 실로 왕성한 시대에 흠이 되는 일ियो. 바야흐로 이 해에 풍년으로 백성들이 편안한 상태가 되었는데, 어찌 장차 고쳐 새로 지음으로서 배움의 모양새를 이루는 일을 하지 않으리오?” 바야흐로 위에 청하자 밝은 임금의 조칙이 이미 내려왔다.⁵⁶⁾

1897년에 이병휘(이병휘)⁵⁷⁾ 목사가 쓴 “중건기”⁵⁸⁾에도 중창의 이유가 “심히 헐뜯어져 피폐”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병신년(1896년) 4월 8일 부임하여, 문묘에 가서 삼가 절을 하였는데, 문묘의 집이 심히 헐뜯어져 피폐하였다. 들보는 꺾인 데가 있었고, 서까래도 잘린 데가 있었으며, 봄 풀이 뜨락에 가득하였다. 내가 채구석 관관을 돌아보면서 안향(安珦)의 시구 “뜨락 가득 봄 풀만 무성하고 적막하여 사람도 없도다”를 읊조렸고,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서로 더불어 관청으로 되돌아왔다.

벌처럼 소란스럽게 짝이 다시 트도록 이를 수렴하여 검토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거의 1달 넘게 소비하였다. 이어 농사철이 곧 다가오고 장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생각하기에 능히 흠을 빚고 나무를 베어 오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가을에 곡식들이 익었고, 백성들 또한 조금 편안하여 겨를이 생겼다. 이에 여러 선비들과 문묘를 수선할 것을 의논하였다.

55) 鄕校 重修記

【殿】廡之漏濕，門【宇】之【凋】落，爲士林尋常悚惶【懼】之久，而未遑矣。何【幸】，張侯寅植，慨然于此，代石鋪磚，以祛年年改簷之勞，鳩材葺【門】，以廣日日入學之【路】。庭下【之】杏壇，門外之【紅】【箭】，一時突兀於眼前。若非賢侯之盡心做事，豈可遽至於此哉？其於改建之功，尤有光焉爾。

56) 校宮之移建于茲，尙未五十春秋，而禮殿之上漏下濕，兩廡之左欹右傾，與凡堂齋【庖】 湫之壞而弗支者，非但士林之【茹】嘆，實爲盛代之欠事。方此歲登民安，盍將改而新之，以成學樣事？』 方上請而明詔【已】下矣

57) 『고종·순종 실록 CD』를 찾아보면, 고종 24년 선전관과 고종 32년 법무 형사국장을 지내었으며, 1986년(건양 1년) 제주보 관찰사를 지내었으며, 그 뒤 1906년 한성재판소 수반 관사를 역임하였다. 김봉옥 편역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694면에 보면, 1898년에 마장세와 화전세 때문에 방성칠 난이 이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책임이 이병휘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8) 『제주 유백 육백년사』 부록 1067면에 탁본 사진이 실려 있다. 이 탁본은 글자 판독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탁본의 줄에 따라서 구두점을 넣고 원문을 그대로 옮겨 둔다.

이어 다음해(1897년) 여름에 재목들을 모으고 목수와 기술자를 불러, 여러 꺾인 것들은 새롭게 고치고, 잘린 것들은 덧보태었다. 대성전(大成殿)으로부터 계성사(啓聖祠)와 신문(神門)·무랑(廡廊)·담장을 색척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롭게 하였는데, 모두 약간의 날짜만에 비로소 능히 완공을 보았다.⁵⁹⁾

2) 정의향교

정의향교는 태종 16년(1416) 정의현이 설치되면서 본 읍인 고성리에 신창되었으나 세종 5년(1423) 현청을 성읍으로 옮기면서 향교도 이견되었다. 처음에는 서문 밖에 건립하여 그곳을 향교골이라 하였으며 영조 14년(1738) 나억령(羅億齡) 현감에 의하여 중수되고 순조 9년(1809) 여철영(呂哲永) 현감에 의하여 성 북쪽으로 이견하다가 마치지 못하여⁶⁰⁾ 다음 해 노상희 현감이 마치게 된다. 그러다가 헌종 15년(1849) 장인식(張寅植) 목사에 의하여 현 위치로 이견되었다.⁶¹⁾ 1810년 고명학(高鳴鶴)이 남긴 기록⁶²⁾에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나라에 태학(=성균관)이 있고 시골에 향교가 있는 것은, 모두 성인의 문묘를 받들고 인륜을 밝히고자 함이다. 돌아보건대 이 궁벽진 고을이 온성한 조정의 문채로움으로 밝게 만들려는 덕화를 입어, 성인을 높이고 유교를 숭상함이 진실로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 혹 외례의 문채에 빠진 것과 제도에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것도 대개 역시 많았다.

지난 세종 5년(1423년) 이 고을이 진사리로⁶³⁾ 옮겨졌는데, 향교를 성안 서쪽에 지었다. 관청이 너무 가까이 있고 민가들이 있어 시끄럽고 떠들썩하였다. 거둬 잘못된 일은 문묘가 서쪽(西) 방향으로 자리잡아 예의의 근본에 크게 어긋났다.

59) 01행: 余以丙申(1896년)四月八日赴任, 祇謁于

02행: 文廟, 廟宇甚凋弊, 櫟有摧, 桷有 [折], 春艸滿庭, 余

03행: 顧蔡使君龜錫, 誦‘滿庭春草寂無人’之句, 愁然以

04행: 感, 相与還[府], [蜂]鬧[復]萌, 戢[討]之, 撫綏之, 殆費旬朔, 仍

05행: 以農[隔]劇[潦焱][急], 念不能[發 또는 取]士林, 是秋秋熟, 民[亦]

06행: 少[?安]□, 所有[暇], 爰及諸章甫, 謀□以繕修

07행: 聖廟, [乃]於翌年(1897년)夏, 鳩材度工, 就諸摧者易之, 折

08행: 者補之, 自

09행: 大成殿, 至啓聖祠及神門·廊廡·垣牆, 塗墍[瓦]

10행: [堊], [舉]一新之, 總若干日, 始克□[功].

60) 金錫翼, 『耽羅紀年』, 「(純祖)九年 冬 旌義縣監呂喆永 移建鄉校于城北 工未訖而以縣庭火變逮去」.

61) 金錫翼, 『耽羅紀年』, 「(憲宗)十五年 牧使張寅植 移建旌義鄉校于縣城內」.

62) 이원조의 『신수 탐라지』 정의현 학교 조항에 실려 있다(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원 영인본 243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은 마지막 부분(還安 이하)에서 잘려져 있다. 기록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어지는 명륜당과 서재에 대한 중건 기록에 대해서는 탐라문화연구원 영인 『탐라문화총서 5: 탐라지』 345면 이하에서 옮겨 적는다.

63) 지금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이다.

대개 그 처음 지을 적의 제도가 4백년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이 고을 선비들이 이를 진실로 개탄스럽게 여기고 매번 옮겨 짓도록 건의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정의 현감 여철영이 임금님 즉위하신 지 9년(1808년, 순조 8년)⁶⁴⁾ 9월에 이곳에 수령으로 왔다. 삼가 성인 문묘에 절을 하고, 개연히 옮겨 지으려는 데에 뜻을 두었다. 수령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논하여 물었는데, 모두 의견이 같았다. 이에 제주 목사 이현택과 대면하여 상의하고,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얻었다.

이에 길한 땅을 돌아보았는데, 화원동에⁶⁵⁾ 깨끗하고 고요한 땅이 있었다. 기사년(1809년, 순조 9년) 10월 24일에 일을 시작하였다. 때에 맞추어 농한기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부리었고, 목수와 기술자들을 모으기를 은혜로써 하였다. 재목과 기와들은 남정네들이 운송하였고, 식량과 쇠는 대동미로부터 부지런히 조달하였다.⁶⁶⁾

관리와 백성들이 힘을 한데 모아 공사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객사에 불이 일어나는 변고를 만나, 여철영 현감이 급히 교체되어서 일을 끝마칠 수 없었다.

아, 지금 우리의 수령인 노상희 현감이 다음해(1810년, 순조 10년) 2월 잔약한 형국에 새로 부임하였다. 그 편의를 헤아리고 한 마음으로 일을 주관하여서,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 3개월을 넘겨 초9일에 위패들을 도로 봉안하여 왔다. 명륜당과 서재 이외에 삼문(三門)도⁶⁷⁾ 차례로 완성을 보았는데, 모두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고, 담장도 규모를 고쳤다. 앞사람들이 끝마치지 못한 공적을 완성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기쁘도다!

아, 유림들이 오랫동안 서두르지 못한 일이 여철영 현감을 만자 비로소 시작하게 되고, 노상희 현감에 이르러 잘 끝나치게 되었다. 이 어찌 기운의 운수가 관여한 것이 아니겠으며, 이 유교의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이미 낙성하는 날에, 나에게 일의 전말을 기록하라고 위촉하였는데,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그 만의 하나만을 졸렬하게 적을 따름인저.⁶⁸⁾

64) 9년은 아마 옛날 햇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즉위년을 시작점으로 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이현중(1971) 『동양 연표』 (탐구당)에는 즉위년은 제외하고 다음 해를 원년으로 잡고 있으므로 순조 8년이라고 보았다.

65) 전하는 말로는, 표선을 성읍리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한다. ‘향교 부설기 개정’에도 “정의 현성 북쪽 화원동에 옮겨 지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66) 길거(拮据)는 『중문 대사전』에 세 가지 뜻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부지런히 하다는 뜻으로 새겨 둔다. 대동미에서 남는 몫을 일꾼들의 식량과 소요 물자를 사는 데에 지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67) 들어가는 큰 문 이외에 좌우 양쪽에 높이가 조금 낮은 문을 만들어 둔 형식의 출입문이다.

68) 國有學，鄉有校，皆所以奉聖廟，而明人倫也。顧茲僻邑，霑聖朝文明之化，尊聖崇儒，靡不庸極，而其或儀文欠缺，制度未備者，蓋亦多矣。

粵我世宗五年(1423년)，移茲邑于晉舍里，建鄉校于西城內，府衙迫近，閭閻喧鬧，重之以文廟坐西，大違禮經。蓋其草創之制，仍循四百年于茲，而本邑士儒，是庸爲慨，每議移建，而未果矣。

邑侯呂公誥永，以當寧九年戊辰(1808년，순조 8년) 九月，佩銅¹⁾于茲，祇謁聖廟，慨然有意於移建，官意先定，詢謀僉同。乃與使相李公顯宅面商，¹⁾ 啓請蒙允。而爰卜吉址，於化源洞，淨閑¹⁾之地，以己巳(1809년，순조 9년) 十月 二十四日，始役。使民以時，募工以恩，材瓦以男丁運輸，糧鐵自大同拮据，官民同力，工役方張，而不幸遇客舍火變，公遽然遽歸，未克終事。

3) 대정향교

대정향교는 태종 16년(1416) 대정현 현성 안에 신창(新塾)되었으며 효종 3년(1652) 어사 이경억(李慶億)이 이건(移建)을 계청(啓請)하고 다음 해 이원진(李元鎭) 목사가 현성 남쪽 단산(簞山) 밑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건하였는데, 현감 권극중(權克中)이 주관하였다. 이에 대해 권순명(權純命)은 1936년에 쓴 「대정향교 중수기(大靜鄕校 重修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정향교는 옛날 대정현 현성 안에 있었다. 효종 임진년(1652년, 효종 3년)에 이경억 어사가 땅이 낮고 좁다고 하여, 옮겨 짓도록 임금께 아뢰어 청하였다. 다음 해(1653년) 이원진 목사가 이를 현성의 동남쪽 1리에 있는 단산⁶⁹⁾ 아래로 옮겨 고쳐지었다. 그러나 바닷가 옆이므로 바람을 받게 되어 고쳐 지은 것이 여러 번 있었다.⁷⁰⁾

이 기록을 토대로 할 때, 대정향교 이건의 이유는 향교의 위치가 “땅이 낮고 좁아” 부질하고 또 협소했기 때문이며 중창의 이유는 “바닷가 옆이므로 바람을 받게 되어” 집을 고쳐지어야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대정향교의 이건은 단 한차례였지만 중창은 따라서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대정향교의 이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현종 원년(1835) 박장복(朴長復) 목사가 쓴 「대정현 성묘를 중건하는 기록(大靜縣 聖廟 重建記)」에는 그 내용이 보다 자세하다.

성인을 모신 문묘는 옛날 대정현 현성 안에 있었는데, 땅이 낮고⁷¹⁾ 다급하게 막히어 있었습니다. 3번 건년 계사년(1653년, 효종 4년)에 이경억 어사가 옮겨짓는 것을 임금께 아뢰 즉, 이원진 목사가 고쳐짓기 위해 대정현 현성 남쪽 단산 아래에 있는 땅을 정하였습니다. 샘은 맑고 봉우리는 빼어나며, 양지 녘을 바라보고 음지를 뒤로하여, 드디어 영원히 성인의 위패를 편안히 모시는 곳이 되었는데, 지금 이 곳이 그 땅입니다.⁷²⁾

吁, 今我侯, 慮公尙熙, 以翌年(1810년, 순조 10년) 二月, 新葺殘局, 措其便宜, 一心幹事, 以抵于成, 越三月 初九日, 還安. [*이하 보충 부분임*] 明倫堂·西齋外, 三門, 次第告訖, 輪奐載新, 墻垣改規, 以遂前人未了之功, 豈不猗歟, 休哉!

噫, 儒林積久未遑之事, 逢呂侯而經始, 至盧侯而克終, 此豈非氣數之所關, 而斯文之大幸也耶? 既落之日, 囑余記事, 不敢辭, 拙叙其萬一云爾.

69) 오창명(1998: 200 이하)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 출판부)에는 ‘바굼지 오름’ ‘바구미 오름’ 등으로 민간 이름이 올라 있다.

70) 大靜鄕校, 舊在縣城之內, 孝宗壬辰, 御史 李公慶億, 以地湫隘, 啓請移建, 明年, 知郡李侯元鎭繼之, 就城東南一里, 簞山下, 改築. 然濱海喜風, 累經沿革,

71) 비(庫)는 원래 집(집의 용마루)이 낮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땅이 된다. 따라서 저지대의 땅에다 집을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문에 앞이 막힌 느낌을 주었던 듯하다.

대정향교의 이진 이유로 “땅이 낮고 다급하게 막히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진 시기와 관련해서 흥미 있는 것은 영조 48년(1772) 이관(李寬) 현감이 남긴 “대저, 옛날 옮겨졌고, 오늘에 중건하는 것이 모두 앞 뒤 임진년이 되고, 성묘를 중창한 해가 이미 임신년인 즉, 이렇게 ‘임’에 인연됨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라는 기록으로 “임”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대정향교가 이진된 장소는 현지에서는 ‘바굼지 오름’ 또는 ‘바구미 오름’이라 불리는 단산 아래의 땅으로서 박장복은 “샘은 맑고 봉우리는 빼어나며, 양지 녘을 바라보고 읍지를 뒤로하여”있는 지형이라고 하였다. 2006년 현재 이곳에 대정향교가 있음에 비추어 이진은 단 1회로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창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현종 10년(1669) 이연(李演) 목사 때 현감 조문혁(趙門赫)에 의하여 중창을 하고, 숙종 10년(1684) 이희룡(李希龍) 목사가 또 중창을 하였던 것도 바닷바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닷바람 때문에 집이 빨리 헐 까닭에 영조 28년(1752) 윤구연 목사가 대성전을 중수하기는 했지만 명륜당과 전사청 그리고 서재 등의 부속건물은 비가 새는 데도 손을 못 댄 채 방치하다가 영조 48년(1772) 이관 현감이 부속건물 3채를 중수하였다.⁷³⁾ 이에 대해 이관⁷⁴⁾은 1772년에 쓴 「명륜당, 전사청, 서재를 중건하는 기록(明倫堂 典祀廳 西齋 重建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임진년(1772년, 영조 48년)겨울 11월 초3일 갑오에 명륜당과 전사청과 서재를 중건하였다. 같은 해 12월 초10일 경오에 사민(士民)들과 더불어 낙성식을 가졌다. 대개 중건한 공은 모두 사민들의 힘이다. 사민들의 말에, “지지난 임진년(1652년, 효종 3년) 대정현 성안으로부터 성묘(聖廟)를 이곳으로 옮겨지었는데, 지난 임신년(1752년, 영조 28년) 대성전을 중창할 적에 (이들) 세 채의 집을 보수하는 데에는 힘이 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보수하는 것을 질질 끌며 비가 새는 데를 얹는 것이 여러 해가 되었고, 문묘와 담장에 도색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민들이 길게 탄식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⁷⁵⁾

72) 聖廟, 古在縣內, 地庫迫隘, 粵三去癸巳, 繡衣李公慶億, 啓請移建, 則牧使李公元鎮, 爲改, 卜於縣之城南, 簞山下. 泉清峯秀, 面陽背陰, 遂永爲妥安之所, 今此其地也

73) 金錫翼, 『耽羅紀年』, 「(英祖)四十八年…大靜縣監李寬 重修明倫堂」.

74) 『제주 유맥 육백년사』, 부록 1075면에 탁본 사진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제주 향교의 중건 기록이라고 적은 것은 잘못이다. ‘현성(縣城)’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쉽게 제주 향교의 중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영인(1989) 탐라문화총서5. 『탐라지』, 375면 이하에도 이 기록이 ‘대정 현감 이관(李寬) 기록’으로 실려 있다.

75) 壬辰(1772年, 英祖 48年)冬, 十一月初三日甲午, 重建明倫堂・典祀廳・西齋. 同年(1772年)臘月初十一日庚午, 與士民落之. 蓋重建之功, 皆士民之力也. 士民之言曰, “二去壬辰年(1652年, 孝宗 3年), 自縣城內, 移建聖廟于此, 而去壬申年(1753年, 英祖 28年), 重脩大成殿時, 力未及

향교의 이건에 대한 계청은 어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는 어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대정 유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며 대정향교를 중창하자는 논의 역시 유생들에게서 나와 그것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따라 기와를 굽고, 나무를 구했다. 흥미 있는 것은 경서 가운데의 지정된 몇 구절을 강송(講誦)하던 일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쇠붙이를 준비한 일인데 이로써 한 달 사이에 명륜당과 전사청 그리고 서재 등 부속건물 3채를 중창하였다.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중건하자는 논의가 먼저 유향(儒鄕)으로부터 나와 뽕뽕이 북(鼗鼓) 소리가 군리(軍吏)들에게서도 모두 함께 울렸다. 이에 옹기 굽는 데에서 기와를 구워 내고, 굴 숲 사이에서 나무를 얻었다. 쇠붙이(鐵物)인 즉 강경(講經)을 면제받은 일곱 사람들이 준비하였고, 일품에 드는 식량인 즉 모두 삼청(三廳)에서 급할 때를 위해서 준비된 쌀에 의존하였다. 한 달 사이에 세 채의 집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는 조정의 학문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하는 덕화가 아닐 수 없다. 76)

이관의 1772년 기록보다 뒤늦은 현종 원년(1835) 박장복의 「대정현 성묘를 중건하는 기록(大靜縣 聖廟 重建記)」에도 비슷한 중창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즉, 유생들이 향교 중창을 건의하면 현감이 이를 장계로 목사에게 알리고, 목사는 이 내용을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받게 되면 서울에서 향과 축이 내려오게 되고 이로써 날을 점쳐 위패를 옮겨 드디어 향교 중창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1835년 박장복 목사를 도와 대정향교를 중수한 현감은 장시열(張時悅)이었다.

내가 갑오년(1834년, 순조 34년) 첫 여름에 탐라에 목사로 왔는데, 가을이 지나 부서들을 순시하면서 대정현에 이르렀다. 대정현의 교궁(校宮)을 물어 몸소 문묘의 모양새를 살폈다. 물러 나와 명륜당에 앉자, 유생들이 앞으로 나와 다음처럼 말하였다. “...(중략)... 옮겨 세운 때가 지금부터 거의 2백년이나 되어서 비록 간간히 보수하였었지만 동량(棟樑)이 이미 낡았고, 발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중건하기를 청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유생들의 이런 말은 현감이 이미 장계로 알린 바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몸소 살펴본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 말미암습니다. 삼가 응락 합니다.”하고, 드디어 급히 임금께 아뢰었다. 올해(1835년, 현종 1년) 1월 향과 축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왔다. 이에 날을 점쳐서 위패들을 옮겨 모시고, 기와를 헐고 나무들을 모았다. 무릇 4개월 만에 일이 끝나게 되었다. 5월 첫 길일에 삼가 위패들을 받들어 되돌려 모셨다. 77)

修三舍, 牽補架漏者, 有年, 宮牆無色, 士民長歎矣.”

76) 何幸 重建之論, 先發於儒鄕, 鼗鼓之聲, 齊動於軍吏. 於是, 燔瓦於甕所, 取材於橘林, 鐵物則準備 於七人之免講, 役糧則藉賴於三廳之周急. 一月之間, 三舍就成, 此莫非朝家興學右文之盛化也.

77) 余以甲午(1834년, 순조 34년)之孟夏, 按鉞于耽. 挾秋巡部. 至縣, 問縣之校宮, 躬審廟貌. 退坐明倫堂, 章甫前進曰, (...) 距今幾二百年, 雖間有修補, 而棟樑已朽, 岌岌在即, 請重建焉.』

유생들이 향교 중수를 건의하면 현감이 이를 장계로 목사에게 알리고, 목사는 이 내용을 임금께 아뢰어 허락을 받는 절차로 볼 때 향교 중수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목사에게 있다. 이에 대해 이관은 「명륜당, 전사청, 서재를 중건하는 기록(明倫堂 典祀廳 西齋 重建記)」에서 우두머리 관리와 훈장 그리고 접장의 책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학교가 때로 헐기도 하고 때로 보수하기도 하는 것은 우두머리 관리의 직분이고, 강경을 배우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훈장의 임무이며, 거절 유생들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음은 접장(接長)의 책임이다. 만약 혹 우두머리 관리이면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훈장이면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며, 접장이면서 책임지지 않으면, 건물 보수에 소홀하게 되고, 가르쳐 이룩에 나태해지게 되며, 공부를 권하는 데에 게을러지게 되어서, 자포자기하여 마침내 윤리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집을 행 비위 두고 살지도 않으며, 장학금으로 받는 쌀만을 허비하면서 부끄러움도 없다면, 가히 두렵지 않을 것이며, 가히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아, 우리 여러 군자들이여, 각자 부지런히 직책을 다하여서 이 집이 썩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⁷⁸⁾

이관⁷⁹⁾의 기록에 의하자면 이때 대정 향교 중수를 위해 집 짓는 일을 도맡은 감독 이은성(李殷成), 훈장 강시웅(姜時鷹), 재임(齎任) 김성보(金成寶), 문성위(文聖緯), 공사감독 고봉헌(高鳳憲), 임해창(任海昌)이 수고하였다.⁸⁰⁾

余曰, 『生之此言, 縣監曾有狀, 余今日之親審, 正由此之故, 謹諾。』遂馳啓以聞。

今年(1835년, 헌종 1년)正月, 香祝自京師下來, 迺卜日移安. 撤瓦鳩材, 凡四箇月, 功告訖, 以五月初吉, 祇奉還安,

78) 而至於黻舍之隨毀修補, 官長之職也. 講生之學與不學, 訓長之任也. 接生之勤與不勤, 接長之責也. 若域官長焉溺職, 訓長焉不任, 接長焉恬實, 畧於修補, 懶於教導, 怠於勤課, 而自暴自棄, 終至於無倫之境, 曠安宅而不居, 費廩粟而無恥, 可不惧哉, 可不慨然乎? 嗟, 我諸君, 各勉職責, 庶幾 字之不朽也.

79) 實錄에서는 찾을 수 없고, 邑誌에 당시 大靜 縣監이라고 되어 있다.

80) 明倫堂 典祀廳 西齋 重建記

壬辰(1772년, 英祖 48년)冬, 十一月初三日甲午, 重建明倫堂·典祀廳·西齋. 同年(1772년)臘月初十一日庚午, 與士民落之. 蓋重建之功, 皆士民之力也. 士民之言曰, “二去壬辰年(1652년, 孝宗 3년), 自縣城內, 移建聖廟于此, 而去壬申年(1753년, 英祖 28년), 重脩大成殿時, 力未及修三舍, 牽補架漏者, 有年, 宮牆無色, 士民長歎矣.”

何幸 重建之論, 先發於儒鄉, 鼗鼓之聲, 齊動於軍吏. 於是, 燔瓦於甕所, 取材於橘林, 鐵物則準備 於七人之免講, 役糧則藉賴於三廳之周急. 一月之間, 三舍就成, 此莫非朝家興學右文之盛化也. 大抵, 古移建, 今重建, 俱是前后壬辰之歲, 而聖廟重脩之年, 既是壬申, 則此亦不偶然之事也. 噫, 登斯堂, 明人倫, 人斯廳, 典祀品, 居斯齋, 肄學業, 則庶不負重建之本意. 吾黨諸君子, 盍不勉 施? 且夫殿庭蒔菊, 堂除之種柳, 亦足爲儒林之可觀.

傲霜香葩薰, 谷蘭之嬰娜, 彈地金絲, 將添講樹之婆娑, 培養扶植之功, 亦在於諸君子. 而至於黻舍之隨毀修補, 官長之職也. 講生之學與不學, 訓長之任也. 接生之勤與不勤, 接長之責也. 若域

2.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의 의미

제주삼읍 향교의 이건, 중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비교적 빈번한 이건과 중창의 문제이다. 향교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컨대 향교의 이건(移建), 중창(重棚), 중건(重建), 중수(重修), 위패(位牌)의 봉안(奉安)과 승출(陞黜), 제례(祭禮)에의 향축하송(香祝下送) 등은 반드시 예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조에서 주관하여 처리케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향교를 사사로이 이건하거나 위패를 손상한 수령(守令), 교임(校任), 교생(校生) 등은 처벌을 받았고 심하면 군현이 강호(降號)되는 예도 있었다.⁸¹⁾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삼읍의 빈번한 향교 이건과 중창은 주목이 된다.

또한 그 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건 시기를 눈여겨보면 명종이나 선조조 이후의 일들인데 명종, 선조조 이후는 사학인 서원의 융성으로 향교가 급속하게 폐(廢)되던 시기로서 법제상으로도 속대전(續大典)에는 교수(敎授), 훈도(訓導)마저 혁파되어⁸²⁾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고 교생도 지방 토족의 자제만으로 충원되던 것이 그 신분마저 완전히 변질되어⁸³⁾ 실질적인 지방교육은 서원이 대행하다시피 하던 때였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향교가 침체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빈번한 향교 이건과 중창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官長焉溺職, 訓長焉不任, 按長焉恬責, 曷於修補, 懶於敎導, 怠於勤課, 而自暴自棄, 終至於無倫之境, 曠安宅而不居, 費廩粟而無恥, 可不惧哉, 可不慨然乎? 嗟, 我諸君, 各勉職責, 庶幾 宇之不朽也.

崇禎三癸巳(1773년, 영조 49년) 二月初八日, 上丁, 平昌 後學 李寬 謹記

成造都監 李殷成, 訓長 姜時鷹, 齋任 金成寶·文聖緯, 董役 高鳳憲·任海昌

81) 禮曹에서 鄕校에 대한 제반 조치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 『學校謄錄』 7卷이다.

82) 『續大典』, 吏典, 外官職條에 各道의 敎授, 訓導는 「減」이라 되어 있고 『續大典』, 吏典, 取才條에는 「外敎官今廢」라 하여 鄕校의 敎授, 訓導는 革罷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83) 『仁祖實錄』 卷 14, 4年 11月, 庚寅條, 「古之校生 皆是簪纓世族 非今日雜類之比」.

	신창	중창	이건	비고
제주향교	태조 1년(1392)	세종 17년(1435)	선조 15년(1582)	
		세조 12년(1466)	현종 9년(1668)	
		중종 31년(1536)	영조 1년(1725)	
		현종 30년(1850)	영조 30년(1754)	
		고종 11년(1872)	순조 28년(1828)	
		고종 23년(1897)		
정의향교	태종 16년(1416)	영조 14년(1738)	순조 10년(1810)	
			헌종 15년(1849)	
대정향교	태종 16년(1416)	현종 10년(1669)	효종 4년(1653)	
		숙종 10년(1684)		
		영조 28년(1752)		
		영조 48년(1772)		
		헌종 원년(1835)		

이러한 제주향교의 신창과 중창, 이건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중창은 대부분 집이 헐어 비가 새거나 벽이 허물어진 까닭에 보수(補修)를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창과 이건은 절대적으로 풍수지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영조 1년(1725)에 제주향교가 이건 된 이유가 성안의 큰 화재로 인한 유실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큰 화재로 인해 다음 집터를 고르는 작업은 더욱 더 풍수지리에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곤 했다.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쓴 「제주 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을 보면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풍수를 보는 이들 몇 무리를 불러 모아, 날마다 함께 나다니며, 제주 성의 안팎에 있는 땅들을 널리 찾아보았다.”는 언급처럼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터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문묘의 터 자리가 반드시 별 바른 쪽을 보게 하는 것은, 남면(南面)하여 공자님을 높이려는 것이니, 예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나 땅의 형세가 곳에 따라 같지 않으므로, 옥지에 있는 주·현에서도 모두 남쪽을 향하는 제도를 지킬 수 없는 곳도 역시 많다.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제도만을 고집스럽게 지키어서, 봉우리와 등성이들이 (신하들이 임금 뵈듯) 조회하는 것을 눌러 버린다거나, 물의 형세가 (앞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등지게 된다거나, 집 모양새의 비뚤고 바름과 평평하고 기울을 고려할 겨를이 없다면, 그 또한 지해가 천박한 것이다. 이전에 여러 번 짓고 여러 번 옮긴 것이 어찌 까닭이 없었으랴? 풍수에 대한 논설이 비록 논할 바 못 되나, 천년 동안 제사 지낼 땅이므로, 또한 어찌 가히 진실로 오래 가기를 꾀하

지 않겠는가?

제주향교의 신창과 이건에서 풍수지리가 성립되는 근거는 지리적 형상과 위치가 사람들의 삶은 물론 유생들의 공부에도 여러 모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비롯된다. 터를 어디에 잡는가, 그렇게 잡은 터에 어떤 방위로 자리를 잡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지점과 방위는 주변의 지리적 형상과 기상학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설정된다. 이때 고려되는 환경이 산세와 형국, 땅의 혈, 강물, 바람, 태양, 숲 등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상학적 영향까지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위치와 형상이 미치는 지기(地氣)의 문제와 함께,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감, 바람의 방향과 머무름 등이 도읍풍수나 양택풍수는 물론, 읍택풍수에까지 긴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풍수지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거주공간은 말할 것도 없이, 죽은 사람의 유체공간인 묘지까지 사람들의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데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다. 집터와 묘지가 지니는 풍수지리적 조건이 그 위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나 후손들의 길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이치에 따라 좋은 터를 잡고자 그 조건에 맞는 터를 구하는 데 일생을 바쳐 진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읍과 집터의 풍수지리적 요건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삶과 터의 관계를 밝히고 좋은 터를 가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생적이고 소박한 단계의 민중 풍수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땅을 가리는 일정한 체계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지니면서 풍수라는 지식 체계로 자리 잡혀서 세간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조선국사나 의상조사와 같은 대단한 승려들이 절터를 잡거나, 이른바 국풍(國風)이라 할 만한 풍수 전문가들이 왕실의 뜻을 받들어 도읍을 정하고 왕후장상들의 묘지를 잡아주는 상층 풍수지리가 아니라, 세간의 이름 없는 풍수사(風水師)들이 마을 사람들의 묘지를 잡아주고 집터를 골라주며 지관(地官) 노릇을 하던,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풍수지리가 일반화된 시기는 조선조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관들은 풍수사로서 땅을 헤아리는 능력을 남다르게 갖추었으되, 이를 근거로 치부를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생업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마을에 길흉사가 있을 때 날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듯이,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묘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풍수의 일반화는 이처럼 읍택 풍수가 드세게 된 조선조부터이다. 따라서 제주향교의 신창과 중창, 이건 과정에서의 풍수지리적 영향은 조선조의 이러한 경향과 무관치 않다.

Ⅲ. 결 론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의 회수를 보면 제주향교가 신창 1회, 중창 6회, 이건 5회, 정의향교가 신창 1회, 중창 1회, 이건 2회, 그리고 대정향교가 신창 1회 중창 5회 이건 1회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창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각 1회씩 이루어진 것이며, 중창은 비가 새거나 벽이 허물어져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이건은 제주향교의 경우 화재로 1회 옮긴 것 외에 그 이유의 모두가 풍수지리적인 것이었다. 즉 명당을 찾아 이건을 했던 것이다.

명당이란 풍수지리설에 근거를 둔 좋은 집터나 뫼자리를 말하는데 양택(陽宅:집터)인 경우에는 주건물(主建物)의 전방이고, 음택(陰宅:뫼자리)인 경우에는 무덤 앞에서 안산(案山)과의 사이 공간을 말하며,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에 둘러싸인 부분이다. 명당은 다시 내명당과 외명당으로 구분되는데 내명당은 무덤이나 건물의 바로 앞을 말하고, 외명당은 내명당 밖에 있는 넓고 평탄한 곳을 말한다. 내명당은 임금이 신하들의 조회(朝會)를 받는 정전(正殿)인 명당을 상징하고, 외명당은 곡식 창고를 뜻하여, 넓고도 앞이 활짝 트인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이런 근거를 찾아 이건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학인 서원의 융성으로 향교가 급속하게 폐(廢)되고 지방교육은 서원이 대행하다시피 하던 때에 제주삼읍 향교의 이건이 빈번했던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와는 달리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실직(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들은 향직(鄉職)을 독점하였다. 향직은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직역(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의 직책(職責)과 향직을 중요시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교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신분유지처로서의 기능을 했으며 그래서 중창과 이건도 빈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제주향교>

- 1467년 김처례가 쓴 옛날 향교 비
1536년 시연원 목사의 명륜당 중수 서문
1536년 윤구의 옛 명륜당 중수기
1653년 신찬 교수가 쓴 새로 향교를 옮겨 지은 기록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제주향교를 새로 옮겨 지은 기록
1724년 신유익 목사가 새로 옮겨 지은 제주향교의 상량문
1774년 홍구서의 향교 상량문
1827년 심영석 목사의 향교를 옮겨 짓는 상량문
1828년 이행교 목사의 향교를 옮겨 지은 기록
1850년 김영락 훈장의 향교 중수기
1872년 생원 강기석의 향교 중수기
1897년 이병휘 목사의 중건기

<대정향교>

- 1742년 전 지평 이규채 대정행교 기록
1772년 대정행교의 명륜당과 전사청과 서쪽 재사를 중건한 이관 현감의 기록
1835년 박정복 목사의 대정현 성묘 중건 기록

<정의향교>

- 1810년 고명학 기록

『사마방목 CD』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 유맥 육백년사』

『조선왕조실록 CD』

『증보문헌비고』

김석익, 『탐라기년』

오창명(1998: 200 이하)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 출판부)

이원조 『신수 탐라지』

정도전, 『삼봉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K C I

<Abstract>

The Proces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Hyang-gyo in Jeju's Three Towns During Chosun Dynasty

Yang, Jin-Geon

Jeju's Hyang-gyos were strategically located in Jeju's three towns to spread Confucian ideology of Chosun. This report deal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Hyang-gyo(郷校) in Jeju's three towns including new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transfer. Hyang-gyos were newly built in Jeju's towns following the 'One Town One Hyang-gyo' principle for the successful diffusion of Confucian ideology which was the core philosophy that supported the whole country from the beginning. In the case of reconstruction, Jeju Hyang-gyo(濟州) had been reconstructed for 6 times, Jung-ee(旌義) for once, and Daejung(大靜) for 5 times. The reconstruction of the building was proceeded for mending such as the repair of the leaking roof or destroyed walls. Jeju's Hyang-gyos also changed their locations within their towns. Jeju Hayng-gyo transferred to other locations for 5 times, Jung-ee for twice, and Daejung for once.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was the main reason for the transfers except the one transfer of Jeju Hyang-gyo due to the fire. In other words, people at that time moved the building to an ideal spot according to the divination theory based on topology. People in Chosun dynasty believed that ideal spots were decided according to the appearance of the front of the building or in case of the grave, the space between the grave and the mountain across it. In addition, people believed that the ideal spot was the one surrounded by mountains from the tree sides.

This frequent reconstructions and transfers of Hyang-gyo in Jeju is quite an exceptional case during the mid-Chosun dynasty when Suwon(書院), a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began to thrive and the power of Hyanggyo started to decrease. It was because Hyanggyo in Jeju was considered as a gathering place for those wh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but did not get government posts, and the children of upper class who did not take the state examination. They were the ones with great influence in the local society and even monopolized Hyang-jik(鄉職), the special posts that were only given for the locals. Therefore, entering Hyanggyo was considered as a sign of privilege in Jeju society.

Hyang-jik was a very important post because it confirmed the fact that the person with the post belonged to the upper class. For the local upper class people who had little chance to get the central government posts and pass the state examination, Hyang-jik and the duties in Hyanggyo were a critical means to maintain their statu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ay Hyanggyo functioned as not so much an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place for sustaining social status and it was why there were frequent reconstructions and transfers.

Key Words: Hyang-gyo(鄉校), Jung-ee(旌義), Daejung(大靜), Hyang-jik(鄉職)